



표지사진 : 8월 3일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북한 큰물 피해 1차 지원 물품 선적시키는 모습

## JTS 통권 61호 2006년 9·10월

펴낸날 : 2006. 9. 1

펴낸이 : 법 룬

만든이 : 김경희

도운이 : 서동우, 전성지, 현희련, 양한석  
이미경, 정한정, 김애경, 유명규  
김순연, 장성호, 김옥희, 김현미  
정유석, 박경미, 김영자, 윤경숙  
박연옥, 김정희, 홍은실, 이유나  
배명숙

펴낸터 : (사)한국JTS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화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mailto: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http://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4 엄마는 활짝 웃고 아기는 울고

### 방글라데시 소식

6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방글라데시를 다녀오다

### 특집 - 남북 수해 긴급구호

9 수해로 물든 한반도에 희망의 무지개를

10 <호소문> “한반도에도 희망의 무지개를”

11 남한 긴급구조단 출동 일지

13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북한수해돕기 - 법륜스님’

18 북한수해 긴급물품지원, 민간단체로서 JTS가 처음으로 시작하다

21 <활동소감문> JTS 남북 수재민 돕기 모금 활동을 다녀와서

### 국내소식

25 작지만 풍성한 도심 속의 나눔장터

### 후원의 소리

26 통일돼지 저금통을 찾아서 - 거제 중곡초등학교

### 따뜻한 이웃

29 JTS 두북창고에서 봉사활동 하고 나서...

### 활동보고 및 안내

32 인도지원사업

필리핀지원사업

북한지원사업

국내사업

36 라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결연현황

38 아름다운세상 저금통 후원금 현황

44 신규회원(개인, 단체)명단·물품후원

46 특별기부금 명단·인도네시아 구호금 명단

48 한반도 수재구호금 명단

51 사) 한국JTS기금사용 결과 보고

54 CMS 신청안내

## 엄마는 활짝 웃고 아기는 울고

김승정 | 인도 JTS 활동가



### ●자그디스푸르 아기용품 나누어 준 날

오늘은 자그디스푸르에서 출생신고를 한 34명을 대상으로 아기용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금요일 오후 2시에 지바카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은 농번기라 많이 바쁩니다. 몇몇 분들은 눈에 나가 계셔서 연락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내는 준비는 남자들이 하고 모내기에는 모두 여자들만 합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에는 여자들이 많이 바쁩니다.

2시가 되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책임자인 JJ브라더는 한국으로 가는 준비하느라, 이일 저일 인수인계에 바빠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인도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처음 진행하는 일이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지인인 카미스와르지가 있어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품을 나누어주기 전에 인사를 하고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 잠깐 안내를 했습니



다. 물론 저는 영어로 하고 카미스와르지가 통역을 했지요. 가족계획과 앞으로 있을 4대 기본예방접종(결핵, DPT, 소아마비, 홍역)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했습니다. 물품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백신관리 대상자로 넘겨져서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분배 받은 물품 중 새 옷을 입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평소에 옷도 입고 다니지 않다가 새 옷을 입히려니 아이는 갑갑한지 울어대고 엄마는 새 옷을 예쁘게 입은 모습이 좋아서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갑갑해서 울어대는 아이가 안쓰러워 상의만 입히고 바지, 양말, 신발은 신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꼭 다 챙겨 입혀서 사진촬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에 엄마는 활짝 웃고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 이 사진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활짝 웃고 있네요. 기억납니다. ‘엄마에게 여기 보면서 웃어보세요’ 했더니 엄마가 아이보고 저기저기 하면서 웃더군요.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행복해 했답니다.

그날 행사 뒷이야기를 살짝 말씀드릴까요. 그날 물품 분배는 아이와 엄마만 오르고 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따라온 가족들도 있었답니다. 동생이 새 옷과 신발, 양말, 담요 등을 받고 새 옷을 입자 함께 온 형과 누나들이 병원 마당에 드러누워서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자기도 새 옷 달라구요.

오늘처럼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나누어 주면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답니다. 모자보건 분야에서는 출생신고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3년간 집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분배이니 소문이 퍼지면 출생신고가 늘어나겠지요. 다음 주는 병원에서 조금 먼 동네인 모라탈에서 출생신고가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와서 물품을 받아가게 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자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승정님은?

매력적인 숨김매이 눈썹에 옆집 언니같은 편안함, 특유의 성실함으로 무장한 여인이다. 누구보다 튼튼한 두다리로 오늘도 동계스와리를 내집 앞마당처럼 누빈다.

#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방글라데시를 다녀오다

양한석 | JTS 국제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방글라데시 현장 방문 프로그램에 6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참여 했습니다. 한국 JTS를 포함한 9개의 한국 개발단체들이 참가한 이번 일정은 가난하지만 또한 그 때문에 NGO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1945년 인도의 해방과 함께 영국으로부터 독립됐다가 인도로부터 파키스탄과 함께 동파키스탄으로 분리, 그리고 다시 1971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된 회교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는 UNDP에서 조사한 인간개발 지수가 177개국 중 139위를 차지할 만큼 가난한 나라지만 세계행복 지수에서는 1위이며, 부정부패가 세계1위를(Transparency International)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활발한 시민운동과 세계에서 가장 큰 NGO, (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 (BRAC) - 정규 직원 37,080명, 프로젝트 마을 6만9천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난한 사람들도 돈을 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융자 (Microfinancing) 의 시조인 Grameen 은행의 탄생지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 늦은 밤에 도착해서 다음날 부터 일주일 동안 다카에 있는 한국, 국제, 그리고 현지 NGO와 국제 협력

기관(영국/캐나다) 등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하루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호텔 근처를 혼자 돌아다니며 도시 빈민가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덥지는 않았고 우기라서 공기도 맑았습니다. 회교국가이지만 인도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다카에서는 아침 8시와 9시 사이에 수천 명의 여성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옷공장으로 나가는 행렬을 볼 수 있었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조용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한곳인 다카 빈민촌에는 정말 여기에 한 가족이 살고 있을까 할 만큼 비좁은 양철판 집들이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좁은 골목을 이루고 있고 그 옆에는 높은 은행건물과 쇼핑상가들이 현격한 빈부격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빈민촌은 강이나 호수 옆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꿈을 안고 이주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삶의 만족감이 그렇게 높을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엔 월드컵 8강과 4강이 진행되고 있었고 거리에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국기가 방글라데시 국기보다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없



어도 삶의 여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여유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발전된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갔지만 국제 NGO나 정부기관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여유롭고, 힘이 없으면서도 함께 할 이웃이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해도 당당한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환경 등, 이 사이에서 우리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일주일 동안의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그들이 서있는 곳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입장을 바꿔서 미국의 어떤 개발 사업가가 처음으로 한국을 일주일 동안 방문하고 한국 농촌개발 모델을 만들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온 일정입니다. 국제 NGO는 물론 우리보다 규모가 수백 배가 넘는 현지 NGO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간 한국 NGO분들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현재 모습, 그리고 한국 NGO와 KOICA의 과제들을 보는 듯 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이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수해로 물든 한반도에 희망의 무지개를

지난 7월 한반도를 물바다로 만든 수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해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JTS는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남북한 수재민을 위해  
남북한 구분 없이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원칙으로  
긴급구호 활동과 거리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북쪽의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큰 피해 앞에서 비록 보잘 것 없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마음만이라도 전달되어 절망하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길  
바래봅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호소문> “한반도에도 희망의 무지개를”
- 남한 긴급구조단 출동 일지
-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북한수해돕기 - 범윤스님’
- 북한수해 긴급물품지원, 민간단체로서 JTS가 처음으로 시작하다
- <활동소감문> JTS 남북 수재민 돕기 모금 활동을 다녀와서

[호소문]

## “한반도에도 희망의 무지개를”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태풍과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로 남북한 수재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제방과 도로 복구 못지않게 우리의 이웃인 수재민들의 가슴 속 공허함과 아픔에도 함께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민간군이 합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수재민들에게는 가장 큰 의지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또 다른 이웃이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피해는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북한 수재민들의 고통은 미사일 발사의 굉음에 묻혀 버린 것 같습니다. 북한은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와 함경남도 등 피해 지역도 남한보다 훨씬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남한의 수십 배인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한 지역의 수재 피해가 특별히 심한 이유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대부분이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토사와 물이 휩쓸려 내리는데다 댐이나 제방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물에 잠긴 논밭의 알곡 수확분은 북한 전체 주민들의 한달치 식량이라고 합니다. 폐허가 된 마을의 이재민들이 너무 많아 북한 정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도 홍수까지 겹쳐 주민들은 절망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평양의 버스는 물론 지방의 철도 교통도 두절되어 수해 지역의 주민들은 고립된 채 추위와 배고픔에다 전염병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여 굴삭기 대신 삽으로 제방을 쌓고, 끊어진 다리와 도로는 복구를 아예 포기한 채 외롭게 수마의 상처를 달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홍수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긴급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리마저도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치 논리에 휘말리게 됩니다. 긴장 고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기에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온 뒤의 무지개가 가슴을 환하게 밝혀주듯,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작은 구호의 손길이 남북한 수재민들에게 삶의 용기와 재기의 희망을 줄 것입니다. 많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년 7월 26일(수) 사단법인 한국JTS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대학생 긴급구조단 활동

7월11일, 11명의 대한민국 선재수련 팀이 두북 정토마을로 출동했습니다. 활천리는 많은 비로 독이 무너져 내리고, 수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 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대학생정토회 자원활동가들은 긴급구조를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대신해서 막힌 수로를 뚫고 쓰레기더미가 되어버린 논밭을 깨끗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자란 대학생들이었지만,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농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도울 수 있어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 2. 진주시 문산읍 JTS 긴급구조단 출동



7월11일,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진주시에 JTS 긴급구조단 선발대 2명을 파견했습니다.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스스로 복구하기 어려운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JTS 긴급구조단 24명이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12일 아침부터 총 26명의 긴급구조단들이 침수피해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주로 노인 분들의 집 중심으로 복구 작업은 진행되었습니다. 막힌 하수도를 뚫고, 이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을 말끔히 정리하고, 설거지와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군인 아저씨와 소방관 아저씨들도 이날은 한 팀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은 분들은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희망을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복구 작업을 했던 20여 가구에 생수와 라면 한 박스씩을 전해주었습니다.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먼저 가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짧았지만, 수재민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서 더욱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3.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1리 JTS 긴급구조단 출동

7월 15일, 강원도 인제에 짧은 기간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JTS 긴급구조단은 다시 50명의 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동하는 버



스 속에서 산을 보니 군데군데 산사태가 난 것처럼 벌거숭이가 되고, 나무가 강가로 떠내려간 곳이 보였습니다. 강원도 인제에도 집이 떠내려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벌거숭이 산 뿐이라는 북한에는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조단이 파견된 인



제군 기린면 북1리 일대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완전히 파손된 가구가 5곳, 절반 파손된 가구 2곳, 침수가옥 4곳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바로 위마음은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복구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답니다. 주민들은 콘테이너로 대피해 있었으며, 추가 피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JTS 긴급구조단은 유실된 하천에 임시제방을 쌓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할 수 있을까 싶었던 작업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진행하다보니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으로 정신없이 바쁜 이장님도 직접 오셔서, 우리들의 활동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태풍이 다시 온다는데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새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인터뷰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 북한수해돕기

법륜스님



kbs 1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인터뷰를 하시는 법륜스님

다음은 8월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법륜스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법륜스님은 북한 사람들이 겪는 인간적 고통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인도적 차원의 신속한 북한 수해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국내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의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그 어떤 국제구호기구에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정부의 식량과 비료지원이 보류된 데다 미국과 일본의 원조도 끊긴 상황에서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북지원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한국 JTS가 내일 아침 인천항을 통해 긴급구호물품을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한국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질문 :** 북한의 실제 홍수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 어제 저녁까지 일주일간 확인한 바로는, 신고된 실종자가 4천여 명, 사망자까지 합해서 지금 일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재민은 130만에서 150만 정도로 추산되면서 95년도보다 인명피해는 더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강수량의 절대치는 그때보다 적은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난 것처럼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특히 상류지역 산간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남쪽은 충청도까지, 북쪽은 평안남도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강수량은 우리와 비슷한데 여기는 민둥산에다가 하천도 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피해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났습니다.

**질문 :** 북한정부가 백년만의 큰 홍수라는 방송도 했는데, 식량난이 어떻게 될 거라는 추산이 나오니까?

**답변 :** 작년에 북한이 평년보다는 10% 정도 증산이 되었지만 식량의 절대량은 부족합니다. 현재 북한 전체 주민의 약 45%는 이미 식량이 떨어진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홍수 피해까지 있고 한국에서도 국제기구에서도 인도적 식량지원이 들어가지 않고, 또 교통이 모두 두절되어 지금 물자이동이 안 되는 상태라서 홍수 다음의 후폭풍으로 극심한 식량난과 고통이 따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겹쳐서, 한 말씀 드린다면 쓰나미가 났을 때 제가 인도대사관에 긴급지원금을 가져갔거든요. 인도대사관에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타밀라드에 있는 주민들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에서 접근해서 보름간 가서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서가 아니고 저 정도의 큰 피해가 났고 정부는 정부대로 안보문제 때문에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민중을 생각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받겠냐고 하지 말고 더 주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냐, 더 필요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내일 아침에 인천항에서 구호물품을 실은 배가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지원하시지요?

**답변** : 밀가루 5천 포대 100톤, 라면 1250박스, 옷 만 천점, 신발.. 슬리퍼와 양초 각각 이천오백 여 개, 이렇게 우선 여덟 컨테이너를 보냅니다. 긴급히 필요한 생필품은 중국 단둥에서 구해서 내일 모레 신의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것은 피해가 제일 큰 양덕에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3차 지원할 생각이고, 3차지원은 피해가 큰 평안남도 신양과 성천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 : 지금 말씀하신 물품 수량이 많다면 많지만 이재민 규모를 보면 굉장히 적다는 느낌도 들고요

**답변** : 우선 민간단체가 처음 보내서 물꼬를 트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지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 차원의 대량지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 JTS에서 북한의 수재피해를 돕자고 모금운동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고 그동안의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 지난 7월26일(수) 처음으로 전국 모금캠페인을 시작했고 JTS도 국제사회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다. 약 10만불 정도 책정돼 있고 지난번 인도네시아 사태 때 긴급지원을 한 2만불 했습니다. 그래서 8만불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모금과 관계없이 이번에 지원하게 됐고 후원물품도 창고에 일부 비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은 모금 되는 대로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질문** : JTS가 앞장서고 다른 대북관련 민간단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답변** :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도 지원을 결정해서 이미 모금을 시작했고요. 오늘 아침에 민족화해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점점 더 정치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또 수재에 대한 긴급구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동조가 점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흔히, 군용으로 쓰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 북한정부가 수재민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백만 명 이상을 팽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자체에서도 노력해서 도와야 되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수재민에게 보내는 건 대다수 수재민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저희들이 긴급구호를 가서 해보면, 늘 지원한 게 이튿날 장마당에 나오거든요.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받은 사람이 더 급한 걸로 바꾸는 것도 있고,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주면 거의 자기들이 더 급한 걸 필요로 해서 장마당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서 괜히 우리도 위협하고, 남한에도 수재민이 많은데 북한까지 도와줄 여유가 있느냐.. 약간 북한에 비판적이신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현실을 중요시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도주의라는 건 전쟁 중에도 적군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치료하고, 전쟁 중에도 상대방의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공격을 안 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은 지금 전쟁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고 대부분 민간인이고, 또 극심한 피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저희들 양심의 입장에서서는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많은 분들이 이번 수해를 계기로 냉랭해진 남북관계를 예전 수준으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차체에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답변 :** 민중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덜까 하는 관점에서 조건 없는 지원을 해야지, 지원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도 갖지 말고,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비정치적 분야니까 미

사일을 쓰든 어떻게 하든 그건 그거대로 따지고,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고, 또 반대로 북한도 50년 넘게 겪어온 이산가족 문제를 중단시키는 것도 비인도적 처사입니다.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인도적 지원도 확대하고 이산가족의 만남도 확대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앞으로 법륜스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남한에 계신 동포들에게 당부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리도 홍수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고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 충청도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한 일이고, 저도 가서 해봤지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북한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잘 돼있고 독방과 댐이 잘 돼 있는데도 이런 피해가 왔는데, 나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곳은 얼마나 피해가 크겠나 생각하면 그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픕니다. 중장비도 없이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나. 식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탄 거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하셔서... 저는 우리 남한의 수해 피해주민이라 하더라도 받은 것 중 일부는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마음을 내주셔서 남북한이, 우리 한반도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다른 건 다 놔두고 북한 시민들이 겪는 인간적인 고통을 보자는 말씀이시죠?

**답변 :** 예, 오직 북한주민이 겪는 고통, 그것만 보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북한수해 긴급물품지원, 민간단체로서 JTS가 처음으로 시작하다

### ● 1차 긴급구호 물품 지원 : 인천항 → 남포항

8월 3일(목) 오전 9시30분 인천항(제1부두 13번)에서 남포항으로 북한지원물품을 긴급하게 보냈다. 1차로 긴급식량(라면 1컨테이너, 밀가루 6컨테이너)과 의류 및 생필품(1컨테이너)해서 총 8컨테이너(1억여 원)를 먼저 보내고 추가로 의약품과 생필품(모포, 그릇 등)을 지원했다.



식수가 오염되고 전염병이 돌 가능성이 많아 의약품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지금 민간단체로서 처음으로 JTS가 북한에 긴급지원을 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물꼬가 터져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선적식은 '남북 구분없이 - 한반도에도 희망의 무지개를' 캠페인에 이어 국내 수해지원과 북한 수해지원 등 경과보고에 이어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있었다. JTS 모금활동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노희경(방송작가)씨도 함께 참가했다.

### ●2차 긴급구호 물품 지원 : 단동 → 신의주

박지나 JTS 해외사업본부장이 8월 2일 중국으로 출장 가서 심양의 시장과 공장을 모두 조사하면서 구호물자를 구입, 단동에서 신의주로 보냈다. 2차 지원물품(이불, 그릇 등 5만 달러 상당)은 8월 4일(금) 오후 신의주로 출발했다.

### ●3차 긴급구호 물품 지원 : 인천항 → 남포항

8월 9일(수) 오전 9시30분 인천항(제1부두 14번)에서 남포항으로 3차 북한지원 물품을 평안남도 신양군과 성천군으로 보냈다. 지원물품은 밀가루 100톤과 운동화 2,000켤레, 의약품(해열진통제, 소독제 등)으로 특히 운동화는 (주)우연(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에서 한국 2000켤레, 중국공장에서 8,000켤레로 총 10,000켤레를, (주)한유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액 후원해 더욱 그 의미가 크다.

### ●4차 긴급구호 물품 지원 : 단동 → 신의주

4차 지원 물품(이불, 신발)은 2차 지원에 이어 중국 단동→신의주를 통해 들어갔다. 8월 14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신의주로 보냈다. 지원물품들은 수해가 가장 심했던 평안남도 양덕군, 신양군, 성천군에 고루 분배된다.

### ●5차 긴급구호 물품 지원 : 인천 → 단동 → 신의주

8월 24일(목) 5차로 밀가루 500톤(28컨테이너)과 의약품 16박스를 실어보냈다. 이 물품은 인천에서 단동, 신의주를 통해 평안남도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남북한 수해사망자를 위한 위령제

8월 8일(화) 낮 12시,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이번 수해로 허망하게 죽어간 영혼을 위로하는 '남북한 수해 사망자를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프로그램은 인사말, 발원문 낭독, 독창, 대금연주(인간문화제 김응서 연주), 천도제 순으로 진행,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편안하게 쉬기를 진정으로 기원했다.



● 남북수재민 돕기 긴급모금 캠페인, 전국 9개 도시 동시진행



JTS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북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모금 캠페인을 전개했다. 모금은 7월 26일(수) 오후 2시 30분, 전국 9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울산, 대전, 광주, 청주, 제천)에서 동시 진행되었다. 캠페인에 앞서 거리 기자회견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은 비 피해를 남북 구분 없이 도와 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긴급수해 피해지원과 복구지원을 긴급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역 캠페인에서는 JTS 홍보대사 전무송씨(연극인)가 호소문을 낭독하고, 방송작가 노희경씨가 모금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모금 참가자들은 노란우산을 시민들에게 씌워주는 퍼포먼스를 진행, 거리는 노란우산으로 물결을 이루었다.

서울지역 캠페인에서는 JTS 홍보대사 전무송씨(연극인)가 호소문을 낭독하고, 방송작가 노희경씨가 모금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모금 참가자들은 노란우산을 시민들에게 씌워주는 퍼포먼스를 진행, 거리는 노란우산으로 물결을 이루었다.

● 2006년 한반도 수해복구 긴급모금액 (7월 25일 ~ 8월 15일)

총 70,539,421원 + 5,305.00달러



## JTS 남북 수재민 돕기 모금 활동을 다녀와서

김소담 | 대원외고 2학년

8월 2일, 그 날은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다. 방 안의 온도계는 무려 29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 끈적끈적한 느낌에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던 참에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짜증스러웠다. 어머니께서는 오늘 정토회에서 북한 수재민 돕기 거리모금을 한다며, 오늘 2시이니 한 번 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다. 하필이면 이런 더운 날에 밖에서 모금을 하다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긴 했지만 영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 게다가 나는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돈을 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복지시설 개편과 같이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내미는 상자를 애써 외면해 왔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같이 가자시며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셔서 시쳇말로 ‘속는 셈치고’ 한 번 가 보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기 무려 40여 분, 인사동 안국역에 내리자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정토회 회원분들이었다. 초면이라 조금 쑥스러웠지만 회원분들이 다정하게 웃으며 대해 주셔서 다소 께름칙했던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래, 한번 해 보는 거다.’

나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모금활동을 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온 시간이 아깝고 같이 오신 어머니를 봐서라도 내가 조금 부끄럽다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팸플릿을 손에 받아 들고 모금함을 안았다. 20여분 동안 부스 근처에서 캠페인송을 부르고 나서 흠어질 시간이 되었지만 발걸음이 영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옆에 계신 회원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있었다. 나는 지레 머쓱해져 어머니와 함께 바로 모금활동에 나섰다.

“북한 수재민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짧은 멘트를 하는 데 얼마나 버벅거렸던지, 나는 몇 번이나 내 혀를 닦았다. 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부끄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는 바로 멘트를 외며 마음속으로 조금만 도와주기를 빌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는 자기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며 지나쳐 가버렸고 이삼십여분 동안 내 모금함은 비어 있었다.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어차피 수재민을 도우려는 사람들은 개인 성금을 냈을 터이고, 정토회같은 NGO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돈을 내기도 할 터인데, 이런 길거리 모금활동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래서야 내일 구호물품을 사서 선적할 수 있을까. 무시하고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조금 짜증도 났다.

“북한 수재민을 도우세요.”

짜증이 난 나는 어머니의 멘트가 너무 명령조라고 신경질을 냈다. 마치 성금이 모이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잘못인 양. 그런 반면에 어머니는 웃고 계셨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

머니는 웃고 계신데 왜 나는 신경질이나 내고 있을까. 나는 잠깐 반성을 하고 계속 멘트를 외쳤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은 무슨 북한, 아저머니가 북한을 아시소? 북한을 돕긴 멀 도와, 북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나 하소? 얼마나 나쁜지 알거나 하냐 말시오!”

한 아저씨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마구 소리를 질렀다. 북한이라는 말에 자극을 받은 것 같았다. 그 아저씨는 한참 북한이 나쁘다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더니 가버렸다.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끔찍한 전쟁이 있었다고 해도 남북한이 하나의 동포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지금 북한은 수해 피해가 남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알았어도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현실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수해로 4천만 명이 실종되고 사망자까지 집계하면 약 1만 명 정도이며, 큰 물 피해가 너무 커 민간 교류 일정까지 모두 취소한 상태이다.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민간 지원까지 끊기면 북한의 주민들은 뭘 먹고 살란 말인가. 더군다나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의 압력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호소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해 주는 것뿐인데 그렇게 화를 내다니…….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내 앞에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서더니, 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천 원을 주시는 것이었다.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그런 일이 한번 더 있었고, 지나가다가 돈을 집어넣은 사람도 두어 명 있었다.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며 지나간 사람도 있었고 저기 모금함에 이미 넣고 왔다고 하며 웃는 사람도 있었다. 아, 되는구나. 정말로 이런 행사에서 모금을 해 주는 사

람이 있구나.

나는 돌아오면서 어머니께 여쭙어보았다. 이렇게 모금활동을 해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동참하지 않고,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금을 냈을텐데 이렇게 성과도 별로 없이 거리모금같은 것을 어째서 하느냐고 말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마음은 있어도 행동에 잘 못 옮기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모금을 하고 있으면 실천에 옮기기 쉬울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성과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북한 수재민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일은 내가 잠시 생각했던 것처럼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었다.

인터넷에 선적을 마쳤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큰물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실러가는 저 밀가루 포대 중 내 맘은 얼마나 섞여 있을까. 아마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볍게 무시할 수 있지도 않을 것이다. 배는 구슬땀으로 빚어낸 희망을 신고 떠난다.



# 작지만 풍성한 도심 속의 나눔장터

## - 제3회 수자타나눔장터 -



제3회 수자타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7월 7일(금), 세 번째 열린 이번 장터에서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일이 많았습니다.

51명이 내주신 기증물품이 20여명의 자원 활동가들을 통해 판매되었고, 수익금은 660,250원과 25센트로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하여 쓰여 질 것입니다. 기증물품으로는 책이 많이 들어왔고요, 소품도 예쁜 것이 많았습니다. 준비기간 내내 여러 번 물품을 가지고 와서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새콤달콤한 오미자차, 시원한 라시는 금방 동이 날 정도였고, 책코너, 인도물품, 재활용 의류, 악세사리, 냄비, 장식품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번 장터의 가장 큰 볼거리는 문화행사였습니다. 들장미, 송어,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등의 독일가곡을 장혜진님이 열창해 주셨고 최경숙님이 한국가곡으로 '바람 부는 산사'와 '꽃밭에서'를 불러 주셨습니다. 복지사업부 활동가님들은 '수자타아카데미 교가'와 '곰세마리'를 힌디어로 부르며 울동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장터분위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문화 행사는 이런 것이다.'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풍성한 장날

하하하나 집으로 가지고 가는 물건들을 보며 모두 고맙습니다.

도심 속의 장터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천막도 빌려 주셨고요. 천막 치고, 책상 펴고, 자리 잡고, 현수막 걸고, 이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길에서 마주 하면 다음엔 축구공을 꼭 받아달라고 하고, 냄비를 부탁한다고 하고, 두 꼭 짜리 병풍도 부탁받고, 돌 돈 아이가신을 신발도 꼭 챙겨달라고 하고...

많은 주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터에 물건을 내주시는 것, 행사에 참석하는 것, 모두 나눔에 동참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날이었다.

다음 제4회 수자타나눔장터는 9월 29일 금요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앞에서 진행합니다. 이 때는 인도에서 온 활동가들이 인도물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장터가 될 것입니다. 추석 전에 나들이 오세요.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세상 북한어린이 돕기”



## 통일돼지 저금통을 찾아서...

- 거제 중곡초등학교 -

김애자 | 마산정토회 자원활동가

학생들에게도 한민족이면서 전쟁으로 인해 60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알리고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돕는 일에 동참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거제 중곡초등학교 정형련선 선생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인데 수업자료가 별로 없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실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좋은 벗들의 ‘뉴스레터’를 뽑아드리고 인터넷 사이트도 알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북한 어린이를 직접 돕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통일 돼지 저금통 분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빈그릇 수업을 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거제 중곡초등학교는, 푸근하고 포용력이 있으신 교장선생님과 통일 담당 선생님의 적극성으로 통일수업 및 돼지분양이 계획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학생지도, 기타 업무로 할일이 많으실 텐데 애써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바쁘실 때 전화해야 할 일이 생길 때는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통일수업과 돼지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서울에서 새터민이신 선생님이 흔쾌히 오셔서 중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북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와 북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저금통을 수거하는 날 자원봉사자 세 분이 내려가셔서 어린이들과 전달식을 하고 무려 858마리 돼지저금통을 차에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돼지가 조금 밖에 안찬 것이 많다고 미안해 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동전이 무거워도 동전 냄새가 지독해도 우리 어린이들의 정성이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것을 생각하니 즐겁기만 했습니다.

878마리의 돼지저금통이 오는 날 새터민님께서 마침 오셔서 다 진열해 주셨습니다. 진열해 놓은 돼지저금통을 보니 그야말로 '감동 감동'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까지 '얼굴도 모르는 북한을 위해 애쓰는 데 북한 정부는 뭐하나? 자기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데... 너무 고맙다'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개학 즈음에 맞춰 어린이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수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개수 작업은 새터민님들이 매일 나오셔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4~5명의 봉사자가 일주일 동안 애 쓰신 덕에 개수 작업을 다 마치고 나니, 이제 어린이들의 정성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 편지쓰기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들의 정성으로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북한의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자라게 되길 바라며 거제 중곡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일돼지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작지만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말입니다.

돼지저금통 속에서 나온 따뜻한 마음입니다.

‘통일 하자 꽃밭 선 없애고 통일’

‘도움이 별로 안 돼서 미안해’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

‘이 돼지 저금통 너에게 주니까 정말 좋아. 더 크면 더 많이 넣어 줄 수 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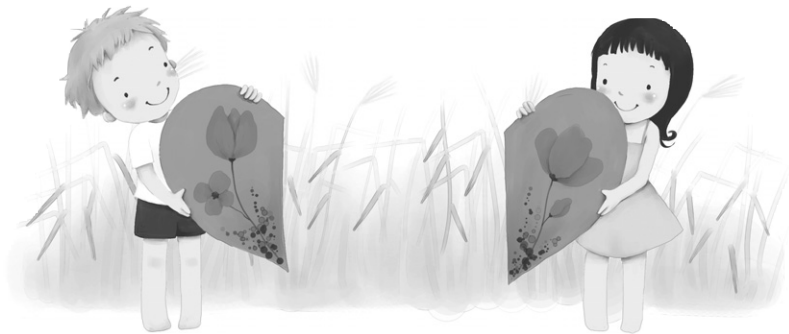
‘통일이 되어서 만나자 이 돈으로 잘 사먹어.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니, 너희들이 직접 우리들한테 받을 돈을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신세영 꼭 기억해주기대! 알았지? 친구들’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정치가 생기리라 믿는다.’

‘저는 통일이 되고 배가 고프 친구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 JIS 두복창고에서 봉사활동 하고 나서...

이현주 | 울산정토회 자원활동가



울산 정토 법당에 발을 디딘지는 1년이 넘었는데, 한 달 전쯤부터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 듣고 나서 총무님으로부터 이런저런 공지사항을 듣던 중, 두복 정토마을에서 창고 정리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쫑긋했지요.

늘 나 살기 바쁘고, 내가 더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토 법당 다니고 법문도 듣고, 법륜 스님이 쓰신 책도 읽으면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봉사활동이 있다고 하니 뭘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내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법당에서 두복 정토마을을 관리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뵈기도 했었는데 늘 따뜻한 미소와 좋은 말씀들을 건네 주셔서 정토마을에

더욱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가 무척 많이 온 날. 태풍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 날 두복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는데도 봉사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모두 나오시더라고요. 속으로 좀 놀랐어요. 비가 온다고 봉사활동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던 제 예상을 뒤엎은 거죠. 정토마을에는 엄청나게 큰 새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 안에는 북한이나 인도, 필리핀으로 보낼 여러 가지 물품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무척 깨끗하고 정돈도 잘 되어 있었답니다. 정리되어 있는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게차를 이용해서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답니다. 문제는 지게차 운전자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한 거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혼자 애쓰시더니 스스로 금방 익히시더라고요. 사실 지게차 운전하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되서 모두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에서 훈수를 많이 두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모두들 열심히 수행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금방 깨달으시고 다들 각자 임무를 열심히 하고 창고 정리를 말끔히 마쳤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서로의 의견들이 늘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아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것이 저는 참 힘들어서 가능하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복에서는 피하고 싶을 만큼 큰 갈등

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마음 나누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나누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일하고 나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힘든데 그냥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누기를 하는데 마음이 참 묘해지고, 모두들 너무 솔직하게 자기



---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부족했던 나의 모습도 보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정토마을의 사무국장님께서 손을 꼭 잡아 주시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꼭 참고 울지는 않았지만 그냥 모든 게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나누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을 텐데 나누기를 왜 하는지 어렵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사람들이 헌 옷을 보내주어서 옷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입기에는 너무 지저분한 옷, 너무 오래된 옷들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받을 사람들에게 배려를 안 한 것 같았어요. 헌 옷이라도 입을 만한 옷을 보내야지 버려야 할 옷들을 그냥 싸서 보낸 것 같아서 도와준다고 해 놓고 오히려 기분만 상하게 할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옷을 오래 두니까 곰팡이가 생기려고 해서 빨리 보내줘야 할 텐데 어찌나 싶은 조바심도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오히려 제게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인도지원사업

### ● 새로운 자원 활동가

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통하여 6월 24일부터 다섯 분이 6개월간의 자원 활동을 시작했다. 안민환님, 박애란님, 오태양님이 마을개발파트에서, 오용태님이 한방진료, 김승정님이 모자보건 사업을 하게 되었다. 또한 김혜원님, 유보미님, 김정준님이 각각 7월 12일, 7월 21일, 8월 6일 1년간의 자원활동을 마치고 비자 연장을 위해 출국하였다.

### ● 가족계획 포스터 표어 공모



모자보건 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표어 공모전이 있었다. 표어는 “적은 가족 행복한 가정”이 대부분이었고,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듯이 문나(아들) 문니(딸) 차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포스터와 쇠구 같은 표어로 잘 묘사한 7학년 디네쉬가 일등을 차지했다.

### ● 가족계획 교육프로그램

#### Family Planning Awareness

7월 21일 모자보건의 첫 사업으로 가야의 산부인과 의사 우메스씨를 초청하여 가족계획과 피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창 바쁜 모내기철에도 불구하고 총 350여명이 참가하여 성



황리에 마쳤다. 교육이 끝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콘돔을 나눠주었고, 10월에 있을 무료 피임시술을 위해 주민카드에 교육 참가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다.

### ● 모내기 방학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모내기를 위한 방학을 했다. 올해는 지난 3년간 보다 한 달은 비가 더 일찍 와준 덕으로 제때에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

### ● 기숙사 신축공사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자타아카데미 기숙사 신축공사가 지중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벽체 조적 및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다.

### ● 체육대회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인도의 광복절인 인디펜

던스데이(Independence Day)를 기념하여 6종 체육 대회를 개최하였다. 축구, 크리켓, 멀리 뛰기, 줄넘기, 눈감고 공치기, 의자에 먼저 앉기 등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고, 우승자들에게는 상품으로 신발이 주어졌다.

● 수자타아카데미 3층 증축공사

벽체 조적공사를 마치고 벽체 미장작업과 지붕 씩우기가 진행 중이다.

● 아마르푸르 유치원 신축공사

벽체 조적공사를 마치고 외부 미장작업이 진행 중이다.

● 두르가푸르 농업용 펌프하우스

벽체 조적공사 및 지붕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고 벽체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북한지원사업**

● 북한을 강타한 폭우 피해, JTS가 긴급지원을 하다  
7월 14일, 15일, 16일 3일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북한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JTS가 8월 3일(목)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긴급구호물자를 보냈다. 이를 계기로 북한미사일 문제로 얼어붙어있던 남한의 대북지원 물꼬를 트게 되었고, 계속해서 8월 24일 5차지원으로 밀가루 500톤과 의약품을 인천항에서 단둥항을 통해 북한으로 지원하였다.

● 중국 심양으로 활동가 급파, 북한수해 지원 물품을 구입하다



8월 2일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과 서동우 북한사업부 간사를 중국 심양으로 급파,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물품구입을 시작했다. 하루 만에 이불 5,000여 채와 그릇과 냄비 등 30,000여 개, 비누, 칫솔, 치약 등을 구입, 8월 4일 단둥을 통해 북한(신의주)으로 물품을 전달했다.

●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 회령·청진을 방문하다  
JTS는 2006년 하반기부터 3년 간 회령시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산모, 수유부를 지원하는 '영유아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나 해외사

**필리핀지원사업**

● 민다나오 사업장 방문

한국JTS의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과 JTS 후원 회원 20여명이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 사업장을 방문했다. 2006년도에 학교를 짓기로 한 8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의 준공식이 진행되었고, 또 2005년도에 완성된 5개 지역 등 8개 지역의 학교 교실 준공식이 있었다. 29일 오후에는 JTS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의 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이후에 마을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논의하는 자리 마련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카가안테오로의 책임자로 오시게 된 토니주교님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업본부장이 8월 17일 2박3일간 회령시를 방문,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북한이 기초자료(영유아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산모 : 키, 몸무게, 팔뚝둘레)를 제공하고 JTS는 이에 필요한 영양식과 의료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왔다. 회령 방문에 이어 8월18일 청진을 방문, 지난 5월에 지원한 생필품과 문구류, 영양식 등의 분배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아원과 양로원을 둘러보고 필요한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돌아왔다. 함경북도 청진과 회령 두 지역은 모두 열악하여 '있는 것이 너무 없다'가 아니라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림은 JTS에서 후원하고 있는 라선시에 위치한 유치원생들이 지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준 것이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는 이 행사 후에도 남북수재민을 위하여 후원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 국내사업

### ● 한반도 긴급모금 및 선적식 참가

한반도 홍수피해 복구를 위해 7월 25일부터 시작된 긴급모금캠페인에 이어 8월에는 북한에 긴급 구호물품을 보내는 선적식이 연이어 있었다. 8월 3일, 9일, 24일 인천항에서 진행된 선적식에는 모금활동에 직접 참가했던 학생과 주부, 할머니, 북한 동포까지 동참하여 감회가 깊었다. 배에 실리는 컨테이너를 보며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전달했다. 직접 후원물품을 보내는 선적식 참여로 활동에 더욱 힘을 얻었다고 활동가들은 전한다.

### ● 북녘 어린이 그림전

옛 전남도청에서 6월 9일(금)부터 17일(토)까지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맞아 '북녘어린이그림전'이 열렸다. JTS에서 협찬한 그림으로 사진전

### ● 아름다운가게 북한 어린이돕기 나눔장터에서 230만원 전달

8월 15일(화), 부천아름다운가게 상동점, 원미점, 투나점에서 기증품등을 모아서 북한 어린이 돕기 나눔장터를 열었다. 나눔장터에 자원봉사자 숫자가 100여명이었고, 부천자원봉사센터에 접수된 일일가게 참여자만도 60여명에 달했다. 기증품이 1,300점이었으며, 가장 뜻 깊은 기증이 정순명 선생님의 문구류 2,000점과 만화가협회의 싸인 티셔츠, 부천만화아마추어동아리의 기증품이었다. 부천통일문화제를 준비하는 단체와 함께 부천투나점 아름다운가게에서는 통일의 미중물이 될 통일메세지를 애드벌룬에 띄워서 올렸는데, 빨리, 통일, 한민족 등의 문구가 가장 많이 눈에 보였다. 우리의 통일이 오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보낸 3일이었는데, 8월 15일 통일장터에서 83만원, 17-18일 부천국제만화축제 나눔장터에서 1,470,000원으로 총 230만원의 커다란 결실을



얻었다. 행사를 통해 얻은 판매수익금 전액은 JTS를 통해 함경북도 청진지역의 애육원어린이와 특수학급어린이 600여명의 영양제와 영양식을 지원하게 된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 ● 풍성초등학교 저금통 계수작업



8월 16일(수), 서울에서는 방학을 앞두고 수거했던 풍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내준 저금통에 들어있는 동전을 헤아리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있었다. 방학동안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중고등학생들도 계수작업을 했으며, 이 활동을 통하여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형님이 되겠다며 동전모으기에 동참했다.

### ● 전국이 함께하는 후원물품이동



8월 20일 일요일, 5톤 탑차를 이용해서 용인창고

에 적재해 두었던 후원물품을 울산에 위치한 두북창고로 이동했다. 인도와 북한 등에 보내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컨테이너에 실릴 것이다. 아침에 서울에서 물건을 보내고 저녁에 울산에서 물건을 받는, 전국이 함께 하는 활동이었다. 실버캐릭터의 양말과 메리퀸에서 지원한 이불, 아시아협력기구에서 보낸 슬리퍼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한 단체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 서초동에서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한 애광원 바자회를 열다

9월 20일(수) 오전 10부터 오후 3시까지 서초동에 위치한 JTS 회관 앞마당에서, 애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으로 이색적인 바자회를 연다. 1952년도에 설립된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 위치한 애광원에서는 240여명의 정신신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오전 11시부터는 '애광원 김임순원장님의 삶과 애광원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애광원 음악동아리인 '해피니스트'의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바자회에서 판매될 모든 물품은 애광원 생활인들이 직접 만들었으며, 이 행사에서 얻은 모든 수익금은 애광원 생활인들을 위하여 쓰여진다. 추석선물을 이 바자회에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많은 분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 ● 중증장애인 애광원 생활인들 경주 니들이 가다

10월 16일(월) 애광원 생활인 30여명이 경주로 가을소풍을 간다. 이날 행사는 버스 한대로 이동하게 되며, 거제도에서 출발하여 경주불교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JTS의 새로운 국내활동으로 영남권 회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날 사용되는 모든 경비일체는 JTS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라진·원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7월 31일 현재



#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7월 31일 현재



\* 회색으로 채워진 곳은 현재 지정기탁자가 부족한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단체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새롭게 후원해 주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 ● 광주

김창수 47,690 양은지 8,500 엄창수 42,490 이성희 18,700 최순희 12,860

## ● 대구

김민서 26,400 김민서 52,180 김순학 31,150 김환 25,140 류정희 24,120 묘안김정목 23,600 무명 13,900 무명 1,480 무명 27,600 무명 9,250 무명 5,410 박병규 35,600 박이옥, 석봉, 수민 17,050 박종호 22,710 심의준 20,450 안상임 10,430 이규덕 20,980 이은정, 장명진 25,740 임민지 46,000 임민지 41,700 장병호, 김춘자 24,350 장선옥 35,740 조옥분 42,080 진호진 15,270 채성기 25,230 채성기 21,610 청안사자판기 18,250 최정희 27,140 학남중2-2반 30,610 학남중2-2반 31,980 학남중2-5반 3,760 학남중2학년일동 32,330

## ● 대전

권진희 26,730 김낙춘 33,740 김낙춘 17,150 김남식 33,910 김민정 31,180 김용근 2,430 무명5개 55,930 무명5개 23,380 무명6개 43,010 배병길 22,930 백원주 7,360 오아시스 46,360 유인자 31,220 정봉진 25,000 조명숙 66,980

## ● 동래

강호섭 14,690 남산중2-1 26,930 류숙희 30,660 류숙희 32,500 무명 17,970 무명 32,820 무명 24,580 무명 11,940 무명 16,530 무명 37,700 무명 14,400 무명 9,600 무명 71,760 문기훈 8,790 박소영 8,320 방황자 23,480 범문주 186,980 범문주 73,580 이민주 3,180 이종철 39,050 임호 19,490 전은애 37,100 정철상 27,990 진상희 31,470 차홍선 20,440 최광수 38,700 한동선 22,600 홍승태 4,540 황규욱 9,250 황선미 27,650 황선영 14,300

## ● 마산

거제곡초등학교 869명 3,334,995(가성은 1,800 가연 1,320 강다영 3,720 강동우 4,050 강무윤 10,190 강민 6,470 강민경 3,090 강민성 8,000 강민정 2,720 강민정 2,000 강민주, 백민호 9,250 강민희 7,360 강병국 1,560 강성희 2,820 강술아 5,020 강수지 7,950 강예민 20,100 강우경 3,780 강웅빈 3,800 강유리 7,800 강유리 3,110 강유지 12,610 강유진 1,150 강윤희 2,760 강재강 6,750 강정민 7,700 강정은 3,200 강준서 5,440 강지연 7,280 강지훈 3,950 강호준 2,660 강호현 880 고통회 1,240 고민성 3,980 고준영 8,190 고현영 7,950 고혜령 880 광도휘 1,570 구경희 1,580 구소영 400 구소현 640 구현주 15,890 권가빈 7,890 권경민 7,940 권기승 600 권나영 2,100 권성철 1,100 권세미 1,950 권소영 4,900 권수경 2,330 권원태 3,900 권유린 2,680 권재아 1,460 권지연 1,920 권지원 3,800 권지현 11,595 권혜린 2,290 김가빈 4,390 김가영 6,650 김가영 3,970 김경민 3,410 김경은 1,990 김경진 5,540 김경현 3,060 김경희 3,160 김고은 210 김규영 2,650 김규진 3,700 김나영 2,300 김나영 3,740 김나현 220 김나희 2,890 김남남 450 김다현 4,530 김다희 7,630 김다희 8,600 김단비 2,790 김대근 4,110 김대원 33,170 김덕훈 2,220 김도영 1,770 김도윤 1,120 김도희 970 김동규 950 김동민 6,190 김동영 3,050 김동진 4,640 김동현 3,620 김두현 730 김병군 2,790 김병중 4,640 김병진 1,000 김미경 300 김미나 4,310 김미래 8,050 김미림 3,230 김미정 12,570 김민범 12,450 김민욱 18,530 김민정 5,470 김민주 5,330 김민지 1,170 김병준 4,780 김보솔 1,840 김보현 2,920 김상재 9,220 김선규 1,640 김선길 2,920 김선민 2,990 김선우 2,170 김선준 1,100 김선화 2,950 김성겸 7,040 김성경 170 김성규 4,570 김성민 1,100 김성진 3,430 김세령 7,110 김소현 1,600 김소희 4,250 김송은 550 김수빈 1,310 김수진 8,100 김슬기 850 김승주 2,910 김승현 480 김아경 1,010 김아라 3,420 김여진 2,140 김연수 2,010 김영수 6,590 김영준 5,770 김영진 5,080 김예영 2,650 김예영 3,000 김예원 4,160 김예은 6,780 김예희 1,830 김예희 1,650 김우중 1,900 김우진 2,670 김우찬 3,150 김원규 16,330 김유 4,300 김유경 2,020 김유정 1,890 김유정 5,330 김유진 9,830 김유진 70 김유진 1,280 김윤정 11,750 김은지 1,200 김은지 4,300 김은진 6,980 김은진 2,500 김이진 3,650 김인석 7,100 김인아 860 김인주 1,200 김장미 3,860 김재승 2,190 김재형 3,560 김재희 1,550 김재희 190 김정인 2,320 김정호 3,810 김정훈 4,500 김정훈 300 김주안 2,340 김주연 1,910 김주는 2,540 김주의 1,890 김주향 4,060 김주혜 1,400 김준호 4,870 김지민 10,270 김지선 4,430 김지원 2,650 김지원 6,790 김지윤 1,330 김지이 2,610 김지호 1,250 김지훈 20 김지희 7,450 김

#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진 5,340 김진서 2,980 김진아 2,490 김진혁 4,120 김진훈 1,720 김찬민 9,900 김찬양 8,950 김찬영 2,400 김창민 1,200 김채민 3,930 김채림 14,270 김채현 2,500 김태균 3,370 김태민 3,260 김태영 350 김하나 4,760 김하니 2,410 김한비 6,120 김한솔 2,800 김해원 6,350 김현빈 1,950 김현수 8,860 김현우 1,980 김현욱 2,900 김현준 1,940 김현지 3,880 김현지 3,400 김현진 1,790 김혜경 6,260 김혜란 3,950 김혜민 3,540 김혜성 5,900 김혜인 5,260 김혜지 3,370 김효영 3,600 김효진 1,230 김효진 850 김희곤 4,000 김희대 2,370 김희진 770 김희향 210 나경난 2,350 나라에 2,880 나의정 940 남지연 3,930 노경선 7,840 노현진 2,090 노호정 1,660 다경 2,100 라형수 3,130 류민욱 8,430 류민희 4,350 류성균 150 류은혜 1,900 류주희 1,980 류하연 2,950 마영미 1,960 마혜경 1,300 무명 1,720 무명 830 무명 1,860 무명 2,920 무명 2,980 무명 4,320 무명 10,450 무명 12,820 무명 2,810 무명 2,000 무명 2,450 무명 2,430 무명 5,640 무명 2,000 무명 775 무명 1,040 무명 1,730 무명 4,260 무명 5,600 무명 8,570 무명 7,260 무명 4,280 무명 4,190 무명 4,170 무명 870 무명 5,000 무명 3,030 무명 2,450 무명 3,000 무명 3,400 무명 3,480 무명 1,850 무명 4,000 무명 4,210 무명 3,620 무명 2,000 무명 4,860 무명 680 무명 1,170 무명 3,340 무명 6,660 무명 1,980 무명 1,000 무명 250 무명 800 무명 260 무명 70 무명 660 무명 170 무명 960 무명 1,010 무명 80 무명 3,110 무명 1,500 무명 1,820 무명 690 무명 1,020 무명 150 무명 200 무명 820 무명 960 무명 930 무명 13,240 무명 780 문관우 2,500 문다혜 2,470 문성준 4,080 문주현 1,340 문희성 750 민명우 450 민영준 1,100 박경훈 8,210 박기태 710 박다원 5,230 박다현 1,765 박동주 1,720 박민성 2,570 박민혜 3,800 박민호 1,190 박보경 2,300 박보현 8,040 박상미 6,070 박상욱 7,750 박상현 6,790 박상훈 1,400 박상희 960 박상희 2,650 박서희 1,130 박선미 2,370 박선수 5,210 박선영 1,590 박성은 7,320 박성하 8,500 박성혜 2,990 박세용 10,300 박세준 5,300 박소연 14,030 박수미 1,350 박수빈 1,940 박수정 4,610 박수한 5,220 박수환 2,470 박애진 1,750 박영동 9,860 박영선 2,140 박영준 3,000 박영철 3,480 박윤진 3,340 박은지 4,800 박은혜 2,380 박익현 900 박인철 1,610 박자길 3,350 박창호 6,310 박재광 7,000 박재성 1,160 박재영 4,150 박재원 3,550 박정금 6,270 박정민 5,670 박정민 5,170 박정준 550 박정진 2,100 박정훈 7,730 박정희 1,220 박제상 1,010 박종화 4,810 박주영 3,790 박주는 830 박주현 980 박준수 3,860 박준혁 3,090 박준혁 500 박지나 3,830 박지명 4,980 박지영 3,000 박지영 4,100 박지예 9,760 박지원 1,300 박지원 2,340 박지혜 890 박지호 1,180 박지훈 4,100 박진 4,750 박진선 990 박진아 3,230 박진철 3,420 박진원 820 박찬우 8,800 박창목 4,440 박초원 1,000 박하나 6,200 박해빈 2,120 박현인 2,400 박현진 1,280 박현진 2,160 박형준 6,130 박현진 2,750 박혜영 2,330 박혜원 2,500 박혜원 1,370 박혜진 1,600 박홍은 2,380 박희수 4,770 박희정 8,240 반경원 6,210 반현진 4,500 방두현 10,240 방상민 2,340 방서연 14,410 방수민 4,380 방수빈 2,430 방지영 4,570 배계령 1,600 배보라 4,390 배선미 1,000 배수희 2,550 배운경 3,300 배은정 5,560 배정훈 7,990 배진교 2,800 배혜린 1,210 백상용 310 백유진 2,120 백윤인 1,120 변진서 650 변혜원 3,960 서귀욱 340 서민기 1,260 서민혁 1,450 서상혁 16,550 서승연 1,960 서승주 3,400 서여정 3,860 서은빈 1,870 서은지 530 서정호 3,310 서재권 1,860 서재형 980 서재훈 2,490 서정민 1,300 서혜경 1,620 석운혁 630 석지윤 1,120 성윤성 9,260 성재원 820 성준우 4,930 손나라 4,930 손나현 1,810 손승화 3,870 손예솔 1,500 손은화 4,760 손예지 3,130 손예지 2,000 손정민 3,490 손주경 3,590 손주호 1,280 손지훈 3,940 손현정 12,890 송민주 3,560 송민진 1,390 송민 6,250 송유진 1,910 송인웅 3,860 송인혁 1,170 송지수 1,860 송찬영 2,830 송현준 2,270 신(?)재호 400 신다현 6,490 신동원 5,350 신동재 250 신민규 2,230 신서린 4,730 신성환 470 신성희 3,770 신세영 2,940 신소연 1,110 신수아 9,120 신영옥 3,210 신예지 2,590 신원 3,370 신은민 1,030 신은진 2,220 신은진 6,810 신재현 4,590 신혜수 1,410 심소영 1,070 심철현 2,890 안(?)하준 2,830 안지윤 8,350 안효정 5,940 양강현 5,000 양다민 420 양다은 6,500 양새라 5,610 양원주 930 양은지 8,930 양주환 640 양미리 410 양희식 3,670 양희정 750 양태민 1,210 여지현 2,330 양병준 12,030 오성민 4,000 오영석 760 오재도 2,350 오종석 3,720 오지연 3,270 오지는 6,620 오현수 2,690 오혜호 3,050 옥수석 1,230 옥수철 2,630 옥유경 570 옥철승 1,560 옥철우 2,150 옥혜영 5,840 옥희수 4,230 우석주 1,470 우재식 12,940 우한비 7,350 우한상 2,820 원대원 1,340 원만희 7,500 원미혜 1,330 원상희 8,210 원유정 1,400 원장민 300 원정민 6,250 원지현 1,500 유가영 980 유권우 4,420 유명진 3,510 유성은 9,100 유성진 2,870 유소민 2,300 유여경 10,090 유예진 3,810 유은지 1,750 유주은 2,000 유준우 9,500 유지영 4,410 유지윤 1,470 유지인 13,410 유혜지 1,700 윤건우 2,270 윤누리 3,980 윤동권 2,710 윤동주 540 윤동한 6,310 윤려진 820 윤민철 18,800 윤빛나 11,410 윤선우 2,490 윤세영 1,050 윤세영 2,800 윤세원 2,000 윤소영 3,790 윤수연 7,280 윤수연 1,360 윤승희 2,000 윤유림 880 윤은수 80 윤은희 1,370 윤자명 3,440 윤재영 1,450 윤종국 3,170 윤종렬 900 윤종진 2,030 윤종호 300 윤종훈 700 윤주영 3,750 윤주현 2,520 윤지원 1,610 윤진우 1,400 윤찬호

#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3,480 윤채원 2,710 윤현진 1,180 윤현호 4,800 윤희현 10,470 은자 390 이경수 2,680 이경훈 1,260 이규혁 1,770 이길규 2,350 이길우 8,480 이나라 3,460 이남용 1,000 이다솔 4,710 이다영 5,000 이도현 3,500 이동관 2,980 이동석 3,370 이두현 16,000 이라희 2,340 이만평 2,680 이명성 550 이명재 1,270 이미연 1,500 이미현 4,230 이민규 2,540 이민정 2,970 이민정 100 이민지 430 이보경 4,100 이상엽 6,440 이상우 3,740 이선영 5,300 이성영 1,050 이성우 6,000 이세민870 이소연 5,740 이수연 5,550 이수연 4,770 이수진 3,550 이수진 4,390 이수진 3,650 이승민 1,010 이승빈 1,900 이승빈 2,350 이승연 1,010 이승은 1,760 이승준 500 이승태 210 이승현 1,300 이승호 4,570 이시는 4,700 이영광 8,030 이영민 9,130 이예린 700 이예림 8,270 이예슬 8,330 이예준 920 이외순 38,500 이우혁 2,730 이원빈 7,150 이유미 10,520 이유진가족 7,870 이은지 1,430 이재범 3,660 이재석 4,250 이재석 5,370 이재원 1,690 이재호 1,300 이정무 980 이정아 3,080 이정운 100 이정은 1,700 이정재 2,980 이정현 5,730 이재호 1,270 이종찬 9,220 이주명 700 이주연 730 이주원 1,160 이준수 180 이준영 1,500 이준용 4,030 이준혁 3,120 이준혁 240 이지연 2,800 이지연 3,020 이지영 2,750 이지윤 560 이지윤 2,320 이지현 19,350 이지홍 2,220 이진우 4,110 이진주 6,670 이진주 1,950 이진주 70 이혜은 2,600 이초은 1,890 이태현 1,300 이하빙 1,260 이하은 10,400 이한나 3,380 이한나 2,930 이한솔 2,400 이한솔 5,600 이해민 1,260 이혁 540 이현담 3,540 이현상 1,770 이현인 1,490 이현인 1,480 이현정 4,430 이현진 2,990 이형석 2,600 이해륜 2,960 이해리 9,920 이해린 4,330 이호원 2,250 이희석 1,490 이희연 750 인하 3,100 임상혁 1,500 임선우 1,130 임성현 6,600 임수경 640 임수진 750 임유미 4,720 임유철 2,120 임윤희 6,960 임정이 4,220 임지호 4,300 임현진 3,740 임호(?)등 2,900 장소연 250 장수연 6,850 장원수 1,500 장유진 2,000 장은비 480 장은진 5,000 장준수 9,300 장준혁 5,590 전소윤 8,310 전승우 5,790 전영환 1,550 전유정 3,000 전호진 4,380 정가웅 2,940 정광진 2,840 청나연 7,440 정다인 1,540 정다훈 3,590 정동은 5,840 정동재 15,950 정민과22명 3,770 정병은 1,770 정성운 1,040 정소은 2,630 정승이 3,160 정승수 990 정수연 1,270 정수영 9,520 정승태 4,740 정연규 2,000 정연화 4,640 정영민 850 정영숙 2,430 정영주 7,390 정예지 4,240 정용진 420 정원규 2,170 정준오 1,250 정준현 3,100 정지원 25,700 정지현 8,060 정진우 1,800 정진주 3,390 정찬결 810 정현애 5,980 정혜수 1,360 정홍준 13,300 제단이 140 제세희 1,250 제성우 2,590 제은지 3,070 제찬희 3,550 조경민 3,160 조경준 3,280 조규민 1,630 조민성 2,850 조민지 2,930 조선민 1,950 조성경 1,530 조성민 3,000 조성민 1,910 조수현 1,110 조시현 3,280 조아름 3,270 조영준 740 조영하 980 조예림 3,560 조예한 2,670 조우영 4,460 조윤욱 1,350 조재원 1,370 조정빈 720 조준수 8,270 조준호 5,110 조하늘 2,810 조한빛 2,400 조현빈 8,300 조현지 1,060 조혜경 3,610 조효민 2,470 조효원 2,630 조희 5,050 추가명 1,520 주리아 1,710 주성진 2,020 주승진 7,920 주시연 5,200 주은빈 9,740 주현진 2,860 주형진 3,940 중곡초등무명 146,710 지윤 440 차재원 5,400 채리나 1,580 천병학 2,430 천은경 2,410 최미령 2,060 최선민 3,170 최성민 420 최성용 4,800 최수연 1,740 최용우 6,230 최원준 1,500 최원호 120 최유리 1,630 최유진 1,340 최윤미 1,330 최은지 2,280 최준호 11,760 최지우 690 최지현 3,810 최지희 21,090 최지희 1,770 최진아 600 추관우 10,050 추연이 2,050 하동우 7,100 하민정 3,800 하민지 3,750 하상훈 1,310 하성왕 1,110 하승민 1,000 하유리 3,270 하유정 4,600 하은경 5,700 하정우 19,700 하정화 2,450 하주성 3,800 하태용 3,580 한웅비 1,900 한성배 1,450 허성혜 990 허은석 4,100 허재현 530 허지연 900 허은서 2,710 현여란 1,480 현은지 2,210 현준성 3,360 홍수민 270 홍수진 2,750 홍예진 2,080 홍준표 7,850 황다빈 2,990 황동민 1,230 황동욱 1,320 황민정 660 황석현 3,410 황성원 1,510 황인주 3,020 황인화 1,000 황정윤 1,650 황준우 7,310 황지영 1,830 황지호 350 황호비 3,920 희진 710) 경남대팔각정식당 5,120 공원란 36,240 김점남 19,790 김태림, 김한림 13,360 김호상39,530 농산물도매시장슈퍼 10,430 농협중앙대인 14,770 무명 50,870 무명 23,730 무명 6,350 무명 6,120 무명 21,580 미야 68,050 박종부 24,810 손병우 15,950손병우 28,140이효순 16,670 진영화 22,290 최상희 5,450 함인석 13,850

## ● 서울

34차개여있기 54,280 갈현초등6-2 30,410 광동중학교 18명 179,260 (광동중불교학생회62,580 김정인 3,770 김중환 15,650 박세희,이소은 10,360 박연희 1,140 성지나 2,750 염정현 2,190 유재우 2,920 윤현준 31,480 이보라 4,180 이하늘 10,650 이희현 1,870 장아진 2,570 전소희 3,610 김수혁 3,500 도보람 5,280 전아람 8,980 조수인 5,980) 교사일깨나눔 46,850 교사일깨나눔 5,060 권수영 21,290 권유선 34,630 권윤정 22,450 김나영 27,710 김대웅 29,850 김명재 33,760 김미영 21,510 김병규 24,890 김병규 15,200 김상순 382,030 김숙현 16,000 김순연 13,670 김애자 23,270 김정애 17,910 김중현 36,620 김주철 17,750 김향 35,350 김향27,120 묘덕 22,530 무명 21,330 무명 19,710 무명 27,370 무명 5,030

#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무명 19,080 무명 44,410 무명 12,820 무명 27,160 무명 39,790 무명 35,970 무명 34,230 무명 27,480  
 무명 26,150 무명 195,330 무명 1,380 무명 3,640 무명 11,640 문수행 11,180 문연선 4,490 문희 26,650  
 미니스톱 20,480 민충선 12,180 민충선 11,290 민충선 10,990 민충선 24,100 박경준 2,600 박선중  
 14,000 박윤경 16,930 광광초등3-1 38,250 비단길 22,450 상하이 12,920 서병화 17,340 서병화 23,970  
 송민석 20,680 신동의 52,300 신동의 34,430 신동현 11,120 신주균 28,330 약천사 312,100 양명숙  
 15,830 양성운 48,280 양종혜 25,670 오현진 52,160 우영옥 25,980 유명규 8,130 유명규 26,800 윤선재  
 26,360 유희연 18,910 이경분 12,340 이경학 36,230 이기갑 22,000 이명희 31,020 이봉수 22,750 이상  
 길 22,360 이선희 17,010 이은정 25,000 임선지 23,700 임유지 9,170 장예진 25,170 장윤선 5,890 장혜  
 진 20,770 정사랑 29,910 정순택 21,770 정윤한 30,060 정철상 26,990 정형 11,620 조경희 26,220 조중  
 태 8,940 차민영 20,930 차화자 28,110 최은석 26,340 차명중 270,740 학익여고2-6 25,710 허재량  
 24,590 황숙현 50,180 황지나 21,560 FORINDIA 43,710 GS25(법당앞) 26,100 mbc 3,080 풍성초등학교  
**교 415명 3,078,750** [(1-1반 국민지 17,760 김세연 7,040 김송현 3,780 김승우 4,750 김예원 6,340 김  
 지호 2,510 김태리 7,940 나원준 5,920 노하균 7,500 도승현 11,110 무명 12,490 무명 6,120 김보경  
 4,510 박예진 5,330 박혜연 13,220 배수민 9,810 서준호 12,480 심민석 15,530 이ભ 14,190 이수민  
 3,070 이원우 14,490 이종민 3,400 이준서 1,780 이지운 10,620 이지은 6,150 이창우 3,240 정상훈  
 3,380 정길 12,280 정우성 14,860 조민희 14,380 조연수 9,320 조연진 9,630 조연하 4,220 차민지  
 4,440 최유림 5,130 홍선협 10,880 1-2반 권윤재 3,390 김민지 1,870 김성식 18,850 김수빈 16,700 김양  
 현 11,320 김지우 5,920 무명 9,440 문도혁 1,230 박건우 6,280 박민혜 16,010 박정은 35,340 박종민  
 3,220 박주연 1,420 박지우 3,400 박진주 20,290 박현진 8,330 송채원 5,100 신동민 8,160 심윤정 6,350  
 이예은 1,310 이희원 10,130 임은찬 12,360 임이지 4,910 전재문 2,750 정규조 4,180 정예진 14,890 정우  
 수 5,520 정주형 5,100 조재성 12,430 최민우 15,000 최원민 4,090 한민지 5,500 황윤식 7,800 1-3반 김  
 민지 17,240 김소담 20,270 김예은 9,260 김한빈 7,710 김희수 4,610 무명 11,990 무명 5,090 박수빈  
 11,550 안소현 9,820 유수향 5,590 유정은 7,670 이금주 11,320 이승현 10,170 이연주 4,350 이유진  
 7,960 이윤선 8,810 이창호 6,330 임재혁 4,660 임현수 18,440 장지담 9,810 정민 15,930 정의정 17,330  
 정종원 2,550 조성우 6,220 조유나 1,870 지은창 2,410 진성준 19,250 천우 10,820 최강민 18,560 최선  
 규 2,920 최현웅 13,580 한승주 4,700 2-1반 강유빈 9,720 권희도 10,910 김민식 5,610 김세희 2,600 김  
 재경 7,540 김지은 5,270 무명 6,760 무명 15,680 무명 1,370 무명 1,560 무명 1,310 박혜영 17,960 이승  
 도 2,030 이주원 3,970 이준범 3,750 임재범 4,370 임채운 8,690 장준석 12,740 조유진 5,910 조은비  
 9,690 황종우 4,510 2-2반 강민호 6,210 김지현 11,170 고동훈 3,700 구지은 5,120 김소진 5,270 김영정  
 1,310 도현주 11,520 박서연 5,600 서명훈 2,110 서수민 2,430 성다는 680 송찬호 2,750 신예민 7,010 안  
 준현 3,240 오원우 4,580 이우수 8,900 이지은 3,670 이현기 7,860 전승환 20,320 전형건 2,650 조규희  
 29,200 조영상 11,300 차하나 11,980 최정민 6,480 2-3반 김경서 1,610 김상영 23,990 김윤경 11,510 김  
 은수 7,230 김찬연 2,570 김혜주 7,990 박상희 9,270 송민정 17,050 유홍순 9,090 윤민지 4,880 이민주  
 6,070 이명주 6,950 이정형 1,500 임지민 1,530 임현석 7,740 장재영 7,050 정다인 5,280 정선아 7,410  
 천경민 8,740 3-1반 김유진 9,390 정재영 9,100 3-2반 강지연 17,750 권희철 10,950 김경현 6,260 김영  
 환 18,730 김재원 10,740 김주한 14,980 동현 16,450 송태선 13,990 여봉준 18,740 윤서영 5,000 이경원  
 3,000 이재원 23,960 이진우 12,330 장현진 4,140 조용민 6,230 조희정 13,800 조희정 1,370 주민욱  
 6,420 최현미 2,000 한혜민 13,700 3-3반 고인건 8,360 김경규 6,630 노예정 16,580 민지혜 2,590 박병  
 호 8,030 박준명 10,790 박준업 5,310 박태형 4,560 박현순 2,420 유지현 6,230 윤동민 5,030 이단비  
 3,140 이수형 6,310 이용하 3,400 정희은 3,840 최지원 11,870 3-4반 고룡운 1,780 김고훈 700 김민규  
 10,650 무명 5,960 무명 2,110 무명 5,680 무명 6,380 무명 12,000 무명 1,210 무명 2,510 무명 1,540 무  
 명 860 무명 5,000 박연재 2,060 신다슬 1,350 심가영 1,820 유현우 11,650 윤수연 1,830 이경미 5,670  
 장재용 17,740 최혜린 1,010 4-1반 강다혜 2,440 김후연 5,730 박은채 12,240 박종현 26,920 신재훈  
 11,820 엄성민 6,000 이강현 16,860 이다연 4,740 이원업 2,720 이유준 2,340 조준영 4,090 천지현  
 11,200 최소윤 1,970 황문영 12,510 4-2반 강유진 6,430 박재희 3,030 박재희 6,110 박재희 9,120 안지현  
 7,150 이명선 1,320 이종은 2,680 이혜린 15,540 장기영 5,320 장윤정 4,700 황윤재 6,250 4-3반 강재연  
 17,940 김선일 2,310 김현진 4,660 김혜민 4,990 무명 15,950 무명 2,540 유민재 6,100 유채진 5,940 이  
 정민 13,700 이주호 5,000 장경자 4,960 전연수 5,910 전유진 3,640 정민규 3,950 정성호 22,690 조수연  
 4,850 주하은 6,730 최연규 790 허수민 5,000 4-4반 고주영 2,710 김민성 22,430 김민중 4,310 김은진  
 4,470 김인기 3,550 노채석 4,030 류원식 2,650 명주명 9,620 민지원 6,840 박소은 5,510 박영완 11,570  
 송정후 13,960 송진호 2,330 신홍주 4,550 오수진 9,950 윤찬빈 9,960 이근희 2,040 이기성 5,510 이민정

#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7,760 이승수 1,510 이예원 6,150 이효정 16,460 정익동 3,050 진형준 5,540 최호석9,210 한지은 3,550 허수진 9,870 5-1반 강대욱 4,760 김규림 4,760 김도현 1,920 독고경진 6,300 박건이 17,600 박민지 2,860 박영미 460 박준보 3,080 박현영 2,000 소연4,120 이우진 6,060 전영은 2,120 정다솜 1,390 조소영 1,790 천혜림 3,030 최미현 1,700 황수황 6,280 5-2반 김기환 3,290 김다연 5,710 무명 8,180 박선희 4,080 박영준2,980 성총희 12,990 송미현 6,970 송민경 10,450 신성태 1,990 신승훈 2,900 윤희정9,590 장재환 3,330 최리나 1,230 최성훈 1,900 함현진 20,590 5-3반 김동민 7,640 김지는 4,620 김한울 9,390 김해인 4,420 무명 6,400 무명 1,620 무명 1,650 무명 1,700 무명 1,060 무명 7,880 무명 1,600 무명 3,210 박성균 1,330 박소미 3,100 서지혜 2,090 이동우 3,360 이효령 14,490 전성문 1,370 정다솜 1,000 정유진 1,560 5-5반 김성연9,740 김예든 7,050 맹서영 2,040 무명 3,180 박동우 24,080 박동우 5,750 백승효 5,530송현주 5,650 윤득수 2,410 이채영 2,080 정연재 14,590 6-1반 김예지 6,420 김유진 21,280 무명 3,060 박재형 22,110 신유지 6,980 이정훈 15,020 이현정 8,350 조장경11,850 최소혜 7,280 최호준 7,340 6-2반 강일운 11,840 김다영 4,850 김현진 2,640 김혜민 10,950 무명 12,050 무명 1,770 무명 140 무명 11,520 무명 2,910 무명 9,740 무명 5,540 무명 6,060 박수빈 7,790 박승형 2,600 박윤배 2,190 박정완 7,400 박정현3,180 소정민 10,650 송윤지 2,450 안도윤 3,430 이성욱 6,190 이수현 9,500 이승섭13,340 이재완 13,330 이주영 3,720 정동민 4,810 정오명 13,800 한지호 20,190 황규장5,120 6-3반 장창희 30,350 6-4반 김혜원 1,600 노효주 4,350 도제문 5,280 이다경3,070 이다경 1,450 최소연 8,550 최소연 8,970 황지은 8,330 김보경 1,640 무명 1,360 무명 1,820 무명 3,560 무명 800 박지민 2,970 유현지 2,230 장진옥 6,540 황동진 440]

## ● 울산

김나원 11,010 김연수 21,120 김일윤 23,780 김주엽 16,880 김춘남 31,500 반소정 34,710 주명훈 5,330 최동호 20,300 최복순 20,630

## ● 제주

강재연 28,570 고이경 13,570

## ● 청주

이영희 19,600 권춘자 1,630 김나영 29,930 김나영 10,630 김지혜 18,190 박윤정 8,090 박형숙 24,810 실상화 31,010 이은선 24,870 정남식 20,390 최대영 31,100

## ● 해운대

무명 11,300 무명 5,890 무명 142,010 무명 9,680 무명 22,040 배병훈 17,900 **상복초등학교 452명 1,029,560** (강무성 2,100 강민찬 180 강보름 3,600 강서영 2,210 강성준 1,100 강수비 5,620 강욱진 1,020 강은비 110 강지현 5,200 강혜령 680 고예림 10,100 구혜림 3,790 권민정 1,230 권소라 200 권애선 1,600 권정희 670 권지민 1,890 권해진 1,490 금보라 390 김감토 90 김강우 2,340 김경륜 170 김경림 1,240 김경민 380 김경호 1,960 김기향 2,370 김다경 280 김다연 1,200 김다는 750 김도윤 1,410 김동현 660 김동현 10 김명옥 1,340 김명진 430 김명천 2,150 김명희 3,360 김미루 5,850 김미정 2,770 김미지 1,410 김민서 2,800 김민수 950 김민아 1,860 김민준 3,390 김민지 1,320 김병식 3,890 김병진 3,630 김보은 8,890 김서해 2,400 김성미 6,000 김성진 210 김소람 5,780 김소연 1,070 김소연 800 김소정 7,450 김소희 200 김수정 3,230 김슬기 3,790 김○○ 500 김아란 2,160 김아랑 720 김엄현 2,900 김영미 630 김영재 5,060 김영훈 310 김은진 1,660 김유민 500 김유신 3,940 김유아 500 김윤주 3,760 김윤희 830 김은이 850 김은주 440 김은진 830 김인아 2,840 김장권 1,590 김정우 780 김정이 1,400 김정철 1,770 김정훈 10 김좌용 200 김주연 1,000 김준 120 김준범 960 김지민 2,150 김지수 1,950 김지영 1,670 김지원 1,040 김지는 20 김지는 3,180 김지는 3,770 김지혜 1,360 김진아 1,030 김태규 100 김태우 210 김태일 350 김태환 7,680 김한주 5,660 김현우 870 김현식 390 김형수 16,900 김혜영 3,350 김화영 290 나수정 3,530 나은진 2,270 나지수 3,100 남시는 2,500 남일우 350 노광규 70 노광규 3,570 도정훈 3,670 류강민 4,960 류근호 3,040 류상우 1,200 류정은 2,290 류지우 150 류현주 560 무명 1,210 무명 300 무명 960 무명 570 무명 3,280 무명 540 무명 4,900 무명 630 무명 830 무명 770 무명 520 무명 1,070 무명 470 무명 1,910 무명 3,750 무명 440 무명 930 무명 4,130 무명 2,860 무명 510 무명 690 무명 200 무명 1,100 무명 50 무명 650 무명 2,070 무명 490 무명 1,370 무명 7,300 무명 2,680 무명



#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1,020 무명 2,120 무명 1,670 무명 1,920 무명 1,770 무명 1,200 무명 2,580 무명 4,200 무명 1,750 무명  
 700 무명 1,160 무명 500 무명 590 무명 690 무명 2,110 무명 2,030 무명 480 무명 1,220 무명 5,250 무  
 명 1,000 무명 2,790 무명 5,150 무명 890 무명 940 무명 1,020 무명 1,310 무명 180 무명 1,410 무명  
 830 무명 1,500 무명 750 무명 890 무명 2,530 무명 520 무명 2,240 무명 680 무명 1,000 무명 320 무  
 명 540 무명 560 무명 230 무명 2,270 무명 1,280 무명 290 무명 650 무명 1,570 무명 600 무명 2,930  
 무명 290 무명 610 무명 1,060 무명 160 무명 4,510 무명 260 무명 690 무명 420 무명 2,220 무명 1,150  
 민지미 2,500 박경민 1,820 박경수 860 박나단 2,300 박동기 1,740 박문채 1,570박상재 2,070 박선민 210  
 박선정 190 박성경 1,610 박성우 1,810 박성진 2,540 박성찬 360 박소현 190 박수명 630 박수정 3,920 박  
 수지 1,200 박시현 6,750 박유화 150 박일상 2,420 박진우 2,570 박종욱 1,410 박주영 4,280 박주은 970  
 박지빈 1,420 박지성 1,350 박지영 950 박지원 3,430 박진영 750 박진우 1,110 박진현 1,100 박한나 550  
 박해리 1,100 박현주 190 박현희 880 박형민 1,320 박희빈 750 반상덕 400 방성윤 3,190 방연주 3,130 배  
 소라 370 배소영 1,190 배정은 1,490 배찬영 850 배해지 2,310 배효진 300 백다혜 1,000 백주영 3,630 백  
 진우 1,100 백한준 250 서나영 4,000 서보민 2,380 서보찬 5,620 서세민 800 서승완 940 서인아 6,530  
 서재훈 490 서정민 2,000 석소리 1,200 성해권 2,350 성현주 1,520 손해지 1,490 송보은 1,860 송수지  
 1,970 송수지 2,160 송숙현 3,710 송정민 4,150 송현오 910 슬기 9,830 신상화 3,960 신상화 3,160 신석호  
 12,450 신성훈 190 신세영 12,150 신소연 3,770 신승연 380 신정향 850 신종렬 2,340 신현지 400 신혜민  
 1,660 신호준 2,450 심민경 850 심우지 2,030 안성 3,200 안성재 4,220 안혜란 1,250 안지은 130 여진욱  
 1,210 염태림 1,810 예림 350 오승무 2,730오준희 5,630 오하영 4,900 옹하 1,550 원예은 1,190 유선경  
 3,160 유오승 6,030 유채석 990 유지연 610 유진 7,440 유충렬 1,610 윤다정 830 윤동제 1,790 윤성민  
 100 윤성우 1,800 윤은준 7,500 윤은지 1,380 윤지수 2,470 윤지아 2,700 윤현희 630 윤희수 2,230윤희원  
 590 이규명 1,500 이다영 4,940 이다희 2,350 이담비 2,940 이동근 1,050 이동진 4,210 이동혁 17,040 이  
 두성 1,120 이령 2,240 이미림 2,290 이미선 3,800 이미아 4,150 이상민 800 이선영 4,210 이소연 4,680  
 이송희 120 이수반 1,060 이수빈 1,610 이수환 100 이순수 1,560 이슬 4,150 이슬이 2,540 이슬이 690 이  
 승래 1,110 이승현 930 이승후 1,820 이승훈 5,090 이영문 570 이옥 16,900 이우연 650 이원욱 6,220 이  
 유민 6,010 이유민 2,770 이우현 2,560 이은 200 이은빈 1,200 이은지 1,910 이은진 1,090 이인서 4,450  
 이재문 1,150 이정민 3,010 이주연 460 이주연 1,060 이준혁 160 이지혜 430 이진영 3,500 이진우 1,110  
 이찬영 13,070 이창수 130 이하양 2,860 이해진 2,000 이항민 1,490 이현민 1,590 이현주 2,580 이현준  
 1,060 이혜림 400 이희성 2,900 임도윤 770 임상은 2,400 임수민 760 임재연 450 임정은 610 임창민  
 400 임채원 2,500 장다와 600 장민수 2,350 장연아 1,700 장우진 880 장은수 4,800 장지연 9,940 장혜  
 연 2,210 정고는 1,590 정다솜 3,250 정민 1,350 정병윤 2,590 정성욱 800 정슬기 4,510 정슬기 1,090 정  
 승연 620 정예문 210 정용두 30 정우중 3,360 정우현 1,960 정월민 1,690 정지윤 70 정한명 2,850 정한숨  
 3,950 정해빈 2,020 정해수 3,320 정혜원 3,060 정혜정 24,690 정희수 1,200 조강현 2,100 조명철 1,150  
 조민지 1,250 조성민 2,050 조은영 430 조찬우 530 조희영 5,810 주영재 500 주현명 1,300 주현지 11,780  
 지은수 520 진성민 1,830 진아랑 3,950 차기영 2,150 차정훈 1,050 차진영 1,540 차태환 6,960 천세진  
 2,560 천주영 2,890 최민서 2,790 최소영 560 최승원 570 최예민 1,100 최재준 3,030 최지은 680 최지훈  
 3,030 최혁두 3,720 최형진 5,960 최호준 250 하은비 2,950 하지는 480 허석 31,650 허은진 2,270 홍우  
 진 2,000 홍정원 2,590 황나경 10,200 황덕민 130 황동규 3,130 황민지 2,500 황선영 9,400 황수빈 950  
 황혜림 6,130 호주 1,510 성중호 17,240 성지는 13,420 이정대 5,640 이태은 103,210 전영복 28,650 조순  
 이 35,660 진미용실 8,310 허희수 11,380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 거리모금 현황

광주 1,025,150 대구 4,140,260 대전 2,113,790 동래 4,223,190 마산 3,666,196  
 서울 5,708,413 울산 1,461,090 제천 364,690 청주 1,531,770 해운대 2,554,369  
 방곡 416,380 북경 119,860 뉴욕제이티에스 558,22\$ 워싱턴 722,52\$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 인도후원회원

P0016570	강경윤	P0003881	서동우	P0018338	장인석	P0017298	남기종
P0001364	강무이	P0019171	서영현	P0004979	장일원	P0003325	박연은
P0012065	강철호	P0019227	성상식	P0018340	장재석	P0015483	박은정
P0003919	공원란	P0019474	성영단	P0018305	진예나	P0017570	박주영
P0018185	금원선	P0017264	안상준	P0017490	정미화	P0004750	박정효
P0004918	기원규	P0019096	양지호	P0018350	정미숙	P0004867	박효진
P0018477	김경화	P0002379	오다영	P0018343	정석전	P0017559	배병우
P0002713	김경희	P0002133	오인지	P0018339	정순분	S0018843	범용사어린이회
P0003120	김경희	P0016814	오인현	P0018304	정재현	P0018236	서순영
P0011223	김규환	P0018348	왕희영	P0018345	정중수	P0017689	송승원
P0009097	김대웅	P0018322	유성근	P0018344	정희영	P0016408	송신홍
P0016978	김동철	P0018322	유성근	P0010319	정금연	P0003587	신교준
P0016552	김동연	P0018342	유진호	P0016060	조인숙	P0017264	상안
P0016557	김영란	P0012928	유운운	P0016090	조재현	P0016911	양우상
P0018204	김영애	P0004595	윤운	P0005128	조정숙	P0018839	양지현
P0018375	김정은	P0005049	윤혜정	P0014010	주관식	P0016814	윤혜정
P0016990	김용의	P0016414	윤해갑	P0005781	주진미	P0016414	이경나
P0017583	김원재	P0018321	이갑진	P0017638	지서희	P0017569	이아우
P0018030	김은정	P0019181	이나은	P0016972	차민영	P0018457	이병준
P0015263	김은희	P0014610	이동훈	P0018842	채성기	P0017592	이봉선
P0011878	김점선	P0018349	이병문	P0017198	최문선	P0017475	이규기
P0018985	김점자	P0018457	이병우	P0003865	최정숙	P0018298	이준석
P0015249	김정자	P0016214	이보은	P0002954	최태자	P0015037	이찬수
P0019565	김정주	P0017592	이봉준	P0018527	하병두	P0015200	이채근
P0002849	김종숙	P0019471	이분남	P0013862	한윤자	P0017563	이채윤
P0016651	김지연	P0001968	이새롬	P0018828	한재승	P0017562	이채원
P0017572	김지선	P0016084	이선우	P0019472	허명자	P0004979	장정광
P0019561	김해순	P0017561	이현선	P0018319	허정	P0018032	정동호
P0014534	김혜정	P0018407	이승혜	P0018098	황두영	P0018838	정미숙
P0017909	김효경	P0017560	이승호	P0010627	황순욱	P0018350	정은주
P0017298	남기종	P0002051	이양선	P0018173	황인호	P0018203	정은연
P0018351	노준식	P0015961	이연숙	P0009393	황혜정	P0018224	조순태
P0016397	노지혜	P0009084	이윤희	S0018102	KTX기관차불교법우회	P0018101	최태자
P0017417	노철화	P0018298	이은기			P0002954	최현정
P0016650	담도	P0018406	이창형			P0017082	최혜정
P0018066	박병오	P0017563	이채근			P0018319	최혜정
P0018196	박신연	P0017562	이채운	P0015932	강인숙	S0018102	KTX기관차불교법우회
P0003325	박연실	P0014276	이판희	P0016637	강지은		
P0018833	박준해	P0018109	이필순	P0015427	곽진선		
P0018100	박혁령	P0010570	이현정	P0011223	김규환		
P0018556	박준준	P0017319	이혜령	P0015994	김남수	P0017264	안상준
P0018099	박지현	P0018405	이효성	P0013826	김남현	P0018460	안홍경
P0018341	박충근	P0017476	이효준	P0010177	김복남	P0015386	이대희
P0003242	박향선	P0006115	임경원	P0012750	김성연	P0014276	이판희
P0017559	배병우	P0017995	임현정	P0016758	김영희	P0014723	최경애
P0017895	변순옥	P0015987	임혜자	P0015263	김은희	P0009577	한희진
		P0018337	장규성	P0019473	김정윤	P0009723	허인무

## 북한어린이결연

## 북한건설후원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P0001696 현 희 련	P0016408 송 원	P0015932 강 인 숙	P0017592 이 봉 준
<b>결핵퇴치후원</b>	P0017264 안 상 준	P0018185 금 선	P0019471 이 분 남
	P0012592 원 치 황	P0015263 김 은 희	P0009084 이 윤 희
	P0009084 이 윤 희	P0019974 김 진 아	P0018298 이 은 기
P0015932 강 인 숙	P0014726 최 홍	P0004750 박 정 영	P0018478 조 윤 정
P0016721 강 호 태	P0018319 혜 정	P0016408 송 원	P0002954 최 태 자
P0018788 류 영 수	<b>아프간후원</b>	P0017264 안 상 준	P0019472 허 명 자
P0018790 류 인 희		P0019181 이 나 은	P0018319 혜 정
P0003325 박 연 실		P0003819 이 명 숙	
P0004750 박 정 영	P0008459 강 성 진	P0018457 이 병 우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분들 중 첫 후원금을 내신 분만 신규회원으로 등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물품후원** | 2006년 6월 26일부터 2006년 8월 25일까지



1. (주)금홍팬시 문구류 2톤분량 총 23,000,000원 상당
2. 정미숙 사탕2박스 85봉투, 과자12봉투
3. (사)아시아협력기구 의류6박스, 야외용슬리퍼28박스560컬레, 플라스틱 쪼리신발41박스 2460컬레
4. 대웅제약 페노스탑플라스타50매\*2, 이지엔6에니20\*10묶음, 텐타가드12\*10박스 총 1,048,000원 상당
5. 금천선원 내복, 수건 등 생활필수품 1박스
6. 신홍사 슬리퍼50, 여름운동복 71벌
7. 구미시온약국 스택타현탁액100포\*10, 에세푸릴500cap\*4, 이부프로펜400mg\*1000T\*5, 셉트린 500T\*12, 아세트아미노펜300mg\*1000T\*20, 아목사실린500mg\*500cap\*10, 이부프로펜 400mg\*1000T\*5, 아목사실린500mg\*500cap\*10, 아세트아미노펜300mg\*1000T\*10, 에세푸릴-628\*300cap\*4 총 2,124,400원 상당
8. (주)한유유통 페디판정86mg/500T\*100, 발소플정500T\*100, 바록신캡셀200mg/500c\*40, 씨트로 정250mg/100정\*20, 셀렉정10mg/100T\*10, 파인투3500ml\*24 총 10,817,000원 상당
9. (주)우연 신발 12,200컬레 총 140,000,000원 상당
10. (주)보덕약품 애니틴살중청 1000T\*2, 안게미정500T\*2, 기목신250mg500c\*2, 아레스탈20T\*2, 타 이레놀1000T\*3, 아섹정 500T\*3 총 995,760원 상당
11. (주)기영약품 스멕타현탁액 20ml/100p\*5, 상냥로페라마이드캡셀500c\*5, 펜브렉스 500mg500mg/10v\*250, 중근당세파졸린주500mg\*10v\*100 총 3,540,500원 상당
12. 신성약품(주) 스멕타현탁액20ml/100p\*10, 아목사실린캡셀250/1000c\*10, 아세트아미노펜정 300/1000T\*10 총 838,000원 상당
13. (주)국제약품 세파트록실캡셀500mg\*500c\*30, 세픽심캡셀100mg\*100c\*30, 플루탈정 370mg\*500T\*30, 오노펜인정200mg\*500T\*30 총 11,511,000원 상당
14. (주)영남제분 밀가루150톤 총 69,000,000원 상당

# 특별기부금 명단

## 해외후원금-미국 뉴욕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 까지]

최 경 숙 \$504.50	김 유 존 \$365.00	김 민 철 \$100.00	한 영 실 \$200.00(인도어린이학교)
김 기 덕 \$160.00	차두대(김숙현, 이정인의 4명) \$100.00	이병현, 최영자 \$1,000.00	임 선 희 \$500.00(북한동포돕기)
박 경 배 \$150.00	Pamela Maponga \$400.00	Shakuntala Sewa \$20.00	이 연 순 \$500.00
Cwiecek Wanka \$10.00	이 정 인 \$100.00	김 병 용 \$200.00	
박장숙, Harold Modell \$1,000.00(인도어린이 책가중)			

## 해외후원금-미국 워싱턴

[2006년 1월부터 2006년 7월 까지]

Son's Quality Food Company \$500.00	오슬기, 오기림 \$20.00	Mr. Tam (고창미) \$10.00[신규]	민덕홍, 김순영 \$100.00(북한수해피해 돕기)
오명자, 오명숙 \$40.00	최영태, 김성순 \$120.00		

## 특별후원금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곽 진 선 5,000원	방 판 칠 1,000,000원	이 택 수 50,000원	김민숙 비료보내기 15,000원
무 기 명 1,000,000원	서 희 정 100,000원	임 남 환 300,001원	이판희 비료보내기 20,000원
김 숙 자 100,000원	설상수 모친 생신기념 50,000원	정 동 호 500,000원	양은지 비료보내기 5,000원
김 정 응 300,000원	송 경 주 100,000원	정미란 결혼축하금 200,000원	미국 워싱턴 무명 \$2500.00 (북한 어린이 영양식)
김진희회장 150,000원	신정철인도사업지원비 200,000원	조 규 현 20,000원	
김태형인도우물파기 100,000원	신홍사 청진시 유치원 파아노 지원 2,500,000원	김 소 라 50,000원	
황 혜 립 50,000원	양 은 지 5,000원	최 현 5,000원	
남울산라이온스 1,000,000원	어 상 우 1,000,000원	최홍 생일축하기부금 150,000원	
박윤희 북한 청진시 생필품및 의약품지원 200,000원	원 지 황 500,000원	한희진 북한의료비 50,000원	
		황 순 옥 96,800원	

## 인도모자보건사업

[2006년 6월 17일부터 2006년 7월 31일 현재]

강 무 철 100,000원	백 성 희 100,000원	이 현 정 100,000원	최 청 운 2,000,000원
공 원 란 100,000원	성 상 식 200,000원	장 성 호 100,000원	한 재 승 100,000원
김 맹 산 30,000원	안 양 진 100,000원	정 상 일 5,000원	해운대정토회 79,000원
김 일 윤 65,000원	양 은 지 5,000원	정 선 화 5,000원	황 승 오 60,000원
김 집 선 30,000원	유 효 순 200,000원	제천법회 65,000원	미국 워싱턴 무기명 \$2500.00
김 형 근 30,000원	윤 원 50,000원	조 덕 희 200,000원	미국 워싱턴 민덕홍, 김순영 \$50.00
김 행 일 100,000원	이 달 은 200,000원	조 용 섭 200,000원	
류 성 희 10,000원	이승연생일기념 15,000원	조 정 숙 30,000원	
류 효 열 100,000원	이 승 희 200,000원	주 관 식 100,000원	
박 향 선 30,000원	이 양 선 10,000원	최 순 이 1,000,000원	
배 중 옥 1,000,000원	이 판 희 20,000원	최 정 숙 100,000원	

6,839,000원 + \$2,550.00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누계 16,137,000원 + \$2,550.00

## ◆정기후원가입회원

P0005133 조 혜 진

P0019568 진 효 언

# 인도네시아 구호금 명단

## 한 국

[2006년 6월 17일부터 2006년 7월 25일까지]

강 상 희	100,000원	깨장모임	1,000원	왕 영 길	25,000원	한 영 태	50,000원
강 정 속	100,000원	깨장모임	47,000원	우 성 인	5,000원	한울타리	150,000원
고 진 수	100,000원	디에스퍼상사	50,000원	윤 정 아	50,000원	황 윤 현	25,000원
구포중학교	130,000원	마하보디선원	710,000원	이 명 세	30,000원	황 혜 정	25,000원
김 동 수	100,000원	민 경 근	20,000원	인도네시아지후원금			
김 명 수	10,000원	민 경 룰	20,000원		30,000원		
김 승 수	50,000원	민 용 기	20,000원	임 남 환	250,001원		
김 영 순	50,000원	손 정 남	50,000원	임 남 환	350,001원		
김 종 태	20,000원	안 춘 회	10,000원	차 상 면	50,000원		
김 지 현	20,000원	엄 경 속	10,000원	천 명 희	50,000원		
김 지 혜	20,000원	여 수 연	1,000원	청 안 사	1,000,000원		

## 미국 뉴욕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6월 31일까지]

Sabina Jana	\$5.00	박 인 규	\$1,000.00	신 금 주	\$100.00	이 하 영	\$10.00
Annela Sherestha	\$5.00	David Dong H Crowell	\$200.00	김 숙 현	\$92.00	명 선	\$10.00
Shakuntala Sewa	\$5.00	최 명 속	\$1000.00	변광립, 정등심	\$300.00	김 유 리	\$20.00
최 경 속	\$105.00	김 정 옥	\$100.00	차두대(이정인, 조숙현 외 4명)	\$85.00	장묘은행	\$10.00
김 기 덕	\$60.00	김 연 문	\$50.00	원 기 남	\$50.00	임 지 인	\$50.00
박 경 배	\$30.00	최 영 자	\$50.00	Chkako Kamada			
한 자 경	\$100.00	김 혜 속	\$50.00		\$22.40		
이 현 주	\$100.00	노 미 정	\$40.00	Charles Byun	\$40.00		
김 현 정	\$100.00	양 영 주	\$20.00	양 윤 선	\$40.00		
임 선 회	\$100.00	김 은 경	\$20.00	이 종 권	\$23.00		
강 호 정	\$50.00	이 경 원	\$20.00	김 은 정	\$20.00		
		양영주 친구	\$10.00	김 미 경	\$20.00		

## 미국 워싱턴

Sons Quality & Food Co.	\$200.00	김태우, 한승희	\$50.00	오슬기, 오기림	\$20.00	이 희 자	\$20.00
오명석, 윤시내	\$100.00	신은미, 방영남	\$200.00	최영태, 김성순	\$80.00	민덕홍, 김순영	\$50.00
		이동희 가족	\$40.00	최창용, 김지애	\$40.00		

## 미국 클럽부스

하 일 속 \$200.00

※5월 1일 부터 8월 25일까지 누계 71,678,697 + \$7908.40

# 한밭도 수재구호금명단

(2006년 7월 25일부터 2006년 8월 15일까지)

## 한 국

강대경(북한홍수피해진용)	김 귀 동	100,000원	김 애 자	20,000원	김 해 경	50,000원	
100,000원	김 규 환	20,000원	김 양 하	10,000원	김 현 자	100,000원	
강 락 원	300,000원	김 기 덕	300,000원	김 영 국	60,000원	김 형 수	38,000원
강 윤 규	50,000원	김 기 석	300,000원	김 영 길	50,000원	김 혜 경	30,000원
강 은 희	100,000원	김 기 영	100,000원	김 영 선	50,000원	김 혜 속	50,000원
강 재 연	50,000원	김 나 영	60,000원	김 바 다	20,000원	김 혜 원	50,000원
강 후 원	100,000원	김 남 곤	10,000원	김 영 속	100,000원	김 호 상	100,000원
강 희 속	200,000원	김 남 수	1,000,000원	김 영 순	30,000원	김 흥 미	10,000원
거제도애광원	915,000원	김 남 순	200,000원	김 영 순	100,000원	김 환 기	1,100,000원
경상대해양환경해양과	김 남 식	150,000원	김 영 운	30,000원	김 희 영	30,000원	
524,000원	김 덕 순	50,000원	김 용 국	100,000원	김 희 정	100,000원	
고미숙(대구)	200,000원	김 도 영	100,000원	김 용 식	30,000원	김 희 준	50,000원
고 병 우	48,800원	김 동 옥	120,000원	김 운 혁	2,000원	남궁정입	20,000원
고 창 무	50,000원	김 명 규	30,000원	김 월 금	20,000원	남 궁 효	100,000원
공 원 란	100,000원	김 명 렬	10,000원	김유정,이호찬	30,000원	노 귀 남	200,000원
곽 봉 준	10,000원	김 명 속	30,000원	김 은 란	11,000원	노 민 정	5,000원
곽 영 술	500,000원	김명환(오정숙)	3,000,000원	김 은 속	20,000원	노 재 국	500,000원
곽 진 선	10,000원	김 문 식	100,000원	김 은 애	20,000원	노 춘 자	1,000원
구 만 석	30,000원	김 미 경	100,000원	김 은 영	30,000원	덕 정 화	10,000원
구 만 석	170,000원	김 미 현	50,000원	김 이 두	30,000원	동대연화회일동	100,000원
구 미 경	10,000원	김 민 영	100,000원	김 일 윤	50,000원	류 근 희	1,000,000원
구 언 년	50,000원	김 민 옥	50,000원	김 정 선	10,000원	류 성 미	50,000원
구 영 희	200,000원	김 민 정	150,000원	김 정 이	50,000원	류 승 완	100,000원
구 은 용	10,300원	김 민 정	300,000원	김 정 한	10,000원	류 현 복	100,000원
권 미 조	200,000원	김 법 성	30,000원	김 정 현	30,000원	류 효 열	200,000원
권 민 정	10,000원	김 봉 준	66,000원	김 정 화	100,000원	맹 명 속	100,000원
권 민 희	10,000원	김 상 훈	20,000원	김 종 복	100,000원	맹 행 일	10,000원
권 수 경	10,000원	김 선 향	10,000원	김 종 한	50,000원	무 기 명	20,000원
권 순 범	100,000원	김 성 일	15,000원	김 주 철	20,000원	무 기 명	300,000원
권 영 속	100,000원	김 성 초	200,000원	김 중 미	1,000,000원	무 기 명	500,000원
권 오 철	100,000원	김 성 훈	100,000원	김 지 성	130,000원	무 기 명	93,880원
권 오 환	50,000원	김 세 리	10,000원	김 진 속	100,000원	무 기 명	2,000,000원
권 재 혁	10,000원	김 세 인	100,000원	김 찬 우	50,000원	무 기 명	1,000,000원
권 정 희	50,000원	김 수 한	100,000원	김 창 근	100,000원	무 기 명	30,000원
권 현 진	200,000원	김 속 조	100,000원	김 채 연	50,000원	무 기 명	50,000원
기 덕 규	200,000원	김 순 정	30,000원	김 태 정	50,000원	무 기 명	10,000원
길 청 람	80,000원	김 승 수	160,000원	김 태 희	20,000원	문경대중일동	60,000원
김 경 란	20,000원	김 승 우	50,000원	김 학 순	50,000원	미르다을	500,000원
김 경 실	1,500,000원	김 승 환	100,000원	김 학 현	5,000원	민 성 복	20,000원

# 한밭도 수재구호금명단

(2006년 7월 25일부터 2006년 8월 15일까지)

민한식	10,000원	손미옥	10,000원	윤귀예	5,000원	이은순	100,000원
박규석	500,000원	손병기	50,000원	윤금자	30,000원	이의정	30,000원
박기범	100,000원	손옥순	30,000원	윤슬기	100,000원	이일중	500,000원
박기선	100,000원	송명희	10,000원	윤여영	20,000원	이점숙	100,000원
박동규	50,000원	송민철	300,000원	윤여준	100,000원	이정선	50,000원
박만준	10,000원	송영희	30,000원	윤원중	100,000원	이정수	200,000원
박미성	10,000원	송화자	100,000원	윤정숙	300,000원	이정숙	50,000원
박미홍	100,000원	수재민돕기	20,000원	윤현순	10,000원	이정희	30,000원
박상준	100,000원	신금예	10,000원	윤희자	100,000원	이제연	10,000원
박선영	30,000원	신동현	400,000원	음성애	50,000원	이제훈	10,000원
박소영	10,000원	신명순	100,000원	이강성	50,000원	이종석	50,000원
박순	500,000원	신상룡	50,000원	이건우	50,000원	이중기	100,000원
박영기	30,000원	신성애	100,000원	이경분	20,000원	이진희	100,000원
박영숙	500,000원	신세권	48,720원	이경숙	30,000원	이춘하	10,000원
박용훈	1,000,000원	신영희	50,000원	이경영	100,000원	이충선	150,000원
박은용	100,000원	신정철	500,000원	이경은	10,000원	이해희	300,000원
박정선	20,000원	신현희	100,000원	이나라	100,000원	이현옥	50,000원
박정임	10,000원	심봉주,하인경	100,000원	이덕수	1,000,000원	이혜영	10,000원
박현준	10,000원	심정순	1,000,000원	이동엽이승은	124,070원	이호준	100,000원
박형숙	5,000원	심종석	100,000원	이동훈	30,000원	무기명	1,000,000원
배수환	50,000원	안재로	50,000원	이명세	50,000원	임남환	300,001원
배종옥	4,000,000원	안춘미	50,000원	이미란	100,000원	임봉이	100,000원
백정애(수해성금)	10,000원	안혜원	30,000원	이방남	1,000,000원	임영광	100,000원
백향하	100,000원	양근섭	50,000원	이상옥	100,000원	임재묵	50,000원
박정심	30,000원	엄기덕	100,000원	이서용	100,000원	임정이	30,000원
부대아카데미	100,000원	여수연	30,000원	이석규	10,000원	임준구이지연	50,000원
복수해돕기	30,000원	연경순	10,000원	이성구	10,000원	장금옥	50,000원
복수해돕기	30,000원	오금실	500,000원	이송희	180,000원	장봉순	20,000원
북한수해긴급지원	50,000원	오상광	50,000원	이수연	150,000원	장선옥	50,000원
북한을도와주세요	100,000원	오세현	20,000원	이수청(김희수)	100,000원	장선일	100,000원
빛과생명교회	1,000,000원	오세현	20,000원	이숙지	43,000원	장성호	50,000원
사공창한	50,000원	오종석	60,000원	이순주	100,000원	장성환	50,000원
색즉시공	500,000원	오택	50,000원	이승란	10,000원	장숙희	100,000원
서동영	10,000원	용수진	10,000원	이승수	50,000원	장승미	200,000원
서동찬	30,000원	우경선	10,000원	이승숙	50,000원	장완수	30,000원
서울법당	125,500원	우영옥	20,000원	이영환	10,000원	장현주	30,000원
서준열	100,000원	원미화	20,000원	이옥경	100,000원	장현주	30,000원
서혜정	100,000원	원치황	500,000원	이우희	601,000원	장혜영	25,000원
설기환	100,000원	유영순	100,000원	이유정	30,000원	전병찬	130,000원
설중환	100,000원	유인경	30,000원	이윤희	20,000원	전승희	10,000원
손명옥	10,000원	유효순	100,000원	이은선	120,000원	전영선	10,000원

# 학반도 수재극호금명단

(2006년 7월 25일부터 2006년 8월 15일까지)

전정환	100,000원	조용호	500,000원	최수연	20,000원	황소연	30,000원
정남식	10,000원	조은연	300,000원	최순이	200,000원	황순애	10,000원
정덕연	50,000원	조일	10,000원	최순탁	30,000원	황승오	50,000원
정돌희	10,000원	조재진	10,000원	최웅재	200,000원	황진효	100,000원
정미경	30,000원	종용성	100,000원	최재경	30,000원	황희남	30,000원
정미영	50,000원	주관식	100,000원	최정숙	1,000,000원	힘내세요	10,000원
정복련	20,000원	지은아	100,000원	최진실	20,000원	mbc취재팀	20,000원
정상봉	50,000원	진영숙	10,000원	최태성	20,000원	김치훈	100,000원
정영희	50,000원	차상련	30,000원	최해성	20,000원		
정유진	100,000원	차상옥	100,000원	최현순	100,000원		
정인권	304,000원	차육진	100,000원	하현주	10,000원		
정재원	53,000원	채경희	30,000원	한국위빠사나선원	100,000원		
정경숙	20,000원	최경순	60,000원	한영배	100,000원		
정철상	500,000원	최광수	213,500원	한옥주	50,000원		
정형길	50,000원	최규상	100,000원	허세황	300,000원		
정훈석	20,000원	최난영	20,000원	홍수피해모금	10,000원		
제순이	50,000원	최덕해	2,000원	홍지영	10,000원		
조개경	10,000원	최명숙	10,000원	화성신흥사	1,000,000원		
조금연	30,000원	최민정	50,000원	황규순	100,000원		
조미경	100,000원	최병무	30,000원	황문현	50,000원		
조영재	55,000원	최봉자	50,000원	황병일	50,000원		
조영희	10,000원	최선애	20,000원	황복현	50,000원		

## 미국JTS-뉴욕

차효순	\$100.00	김숙현	\$100.00	손정실	\$100.00	수보살	\$200.00
이연순	\$400.00	이명숙	\$2,000.00	이현주	\$500.00	김병용	\$500.00
최경숙	\$100.00	손리아	\$200.00	최영자	\$600.00		

## 미국JTS-워싱턴

민덕홍,김순영	\$100.00	최창용,김지애	\$40.00	김미선	\$20.00	Mi Chung & Young C. Yi	
오명석,윤시내	\$100.00	Mr. Chuck(김용욱)		차지근	\$100.00		\$100.00
김동수	\$100.00		\$50.00				

※421명 총액 : 57,934,371 + \$5,410.00



## 사) 한국JTS기금사용 결과 보고

(2006.06.01~07.31)

### 〈수입〉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사업비 보조금	120,000,000	
후원금	203,390,688	정기, 특별후원금
모금활동 수입	35,676,458	돼지저금통 포함
수입이자	3,678,039	
<b>계</b>	<b>362,745,185</b>	

### 〈지출〉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북한사업비	62,394,935	의약품, 신발, 라면, 밀가루외 지원 및 운송료
인도사업비	53,100,890	
기타해외사업비	52,847,474	인도네시아유치원 건립지원 및 필리핀외
국내사업비	8,493,760	
관리운영비	17,671,875	
차기이월금	168,236,251	
<b>합계</b>	<b>362,745,185</b>	



#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 명단 확인 바랍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입금은행명 순)

\*2회 이상 입금하신 분은 1회 내역만 실었습니다.

6/8	(주)삼익진흥 농협	6/14	김정문 국민	6/26	박혜숙 국민	6/2	윤경화 국민
6/30	강금순 국민	7/27	김정민 국민	7/7	배장환 국민	6/20	윤길순 농협
6/15	강명순 국민	6/2	김정환 국민	6/26	배재석 외환	6/1	윤미라 조흥
6/26	강성욱 하나	6/30	김종숙 국민	6/1	배준우 국민	6/12	윤성미 국민
6/26	강세환 조흥	6/1	김지연 국민	6/7	백경희 농협	6/1	이정선 농협
6/5	강영순 국민	6/26	김지현 농협	6/7	백을순 농협	6/9	이정욱 농협
6/12	강해수 농협	7/12	김준소 국민	6/21	변성윤 농협	6/13	이경원 국민
6/5	강현주 농협	6/27	김태님 농협	6/26	보우스님 국민	6/1	이남숙 국민
6/1	곽형길 농협	7/25	김태수 신한	7/28	부채남감사합니다 국민	6/27	이만덕 하나
6/20	권대현 농협	6/27	김홍규 국민	6/1	색즉시공 국민	6/29	이명희 국민
6/30	김갑순 농협	6/12	노미선 국민	6/13	성불하세요 국민	7/20	이복순 국민
6/7	김근영 국민	6/8	노민정 국민	6/12	손순호 외환	6/20	이상환 국민
6/13	김대웅 국민	6/12	노재성 농협	6/23	송경애 농협	6/20	이성애 우리
6/1	김도영 외환	6/22	디에스피상사 국민	6/12	송민철 국민	6/22	이성욱 농협
6/1	김도현 외환	6/30	류은화 하나	6/16	송진숙 농협	6/5	이수연 국민
6/1	김도형 국민	6/16	무주상 국민	6/13	수고하세요 국민	6/7	이연숙 우체국
7/27	김동욱 국민	6/26	문희경 농협	6/20	신동호 국민	6/9	이영숙 국민
6/7	김문기 외환	6/4	민남식 국민	7/5	신순영 국민	7/7	이유미 국민
6/19	김미경 농협	6/20	박남범 우체국	7/21	신순자 국민	7/27	이은주 농협
6/29	김민정 국민	7/18	박도훈 국민	7/27	신영희 국민	7/27	이의정 국민
6/19	김선미 농협	6/1	박상아 농협	6/30	신현정 조흥	6/19	이재환 국민
6/1	김선옥 농협	6/5	박선영 국민	7/14	신혜민 농협	7/7	이종세 국민
6/27	김성초 국민	6/27	박성진 국민	6/19	심정섭 국민	7/25	이종주 국민
6/30	김세준 우리	6/16	박순경 우체국	6/12	심지연 우리	6/21	이태자 조흥
6/5	김순실 국민	6/8	박영혜 국민	7/27	양혜윤 제일	6/13	이태희 국민
7/31	김승한 국민	7/26	박옥순 제일	6/26	여정애 우체국	6/1	이현 국민
6/15	김애숙 국민	7/29	박은용 국민	6/20	연미경 우체국	7/29	이현옥 국민
6/21	김영찬 조흥	6/19	박정현 국민	6/16	오중석 국민	6/1	이현정 국민
6/26	김윤희 국민	7/10	박진선이행정회국민	7/26	오현진 조흥	6/16	이화순 농협
7/4	김인필 국민	7/4	박천룡 국민	6/20	유상혁 국민	6/8	이효명 농협
6/15	김점순 농협	6/3	박철용 국민	6/26	유희연 조흥	6/1	이효정 조흥

#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6/2	인간급복구금 국민	6/7	정선희 국민	6/20	지보사 국민	7/31	한명기 국민
6/7	인도네시아 국민	6/5	정수영 신한	6/10	지정주 국민	6/9	한상훈 국민
6/21	인도네시아저축은행 국민	7/31	정순임 농협	6/9	지진희국민	6/22	허태윤 제일
6/5	임소영 조흥	7/5	정영숙 우체국	6/2	진명숙 국민	6/26	홍언년 국민
6/23	임소현 농협	7/10	정우현 국민	6/14	진윤옥 국민	6/19	홍지영 국민
6/30	임창숙 농협	6/5	정은선 농협	6/7	진택근 국민	6/27	홍진석 국민
6/5	장병대 농협	6/15	정지원 국민	6/12	최명임 조흥	6/20	황현주 하나
6/30	장진숙 조흥	6/22	정진숙 우리	6/28	최속희 국민	7/18	FORINDIA 농협
6/7	장환숙 국민	6/15	정현아 우체국	6/5	최우진 국민		
7/31	전영선 국민	6/1	제3세계 조흥	6/5	최지영 국민		
6/7	전우정 국민	7/18	조귀자 농협	6/30	최태연 국민		
6/25	정두호(잠원동) 국민	6/15	조명순 우체국	6/30	최한운 국민		
7/5	정미숙 농협	6/8	조현정 조흥	7/18	치평중 국민		
7/30	정복련 국민	6/14	주관식 국민	6/5	하효남 조흥		
6/1	정선옥 국민	6/26	주용운 기업	6/19	한만석 농협		

## ● 명단 확인 바랍니다.

개인명의(예금주 : 최석호)로 된 JTS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명단에 계신 분들은 소식지 뒷편에 있는 구좌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 국민 086-21-0466-356  
고민재(보광빌딩), 윤성희, 양태희, 김영자, 봉금례, 권명숙, 유상열
- 농협 044-02-072021  
석미경, 김찬옥, 정환호, 변은아, 장일우, 이주엽, 김상호, 유상완, 김수현
- 우리 430-07-075428  
최용재, 최금숙
- 우체국 013755-02-022689  
김재홍, 김누리
- 하나 103-230740-01104  
한성희, 박명기
- 농협 100080-51-033509  
한해숙, 김선옥, 김동숙
- 외환 093-19-24002-8  
진영희
- 조흥 348-04-303273  
전정란

##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만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할 것입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우리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조흥은행	348-01-111624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신한은행	260-05-011808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 체 국	013755-01-00366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

##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담당자 : 정한정)